

# 기억 록



< 내 고 장 인 천 > 을 기억합니다  
< 굿 모 닝 인 천 > 을 기록합니다

오늘, <굿모닝인천>이 존재하는 이유,  
어제, <내고장인천>이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진짜 인천'을 기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내고장인천>을 찾습니다

<내고장인천> 소장 이벤트

내가 바로 '인천 기록자' <내고장인천> 1994년 1월 창간호부터, 1995년 12월호까지 그리고 1997년 1~3월호를 실제로 소장하고 계신 분은 아래  
메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 보내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제1 행복도시 인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  
300  
100  
2



# 기억 록



< 내 고 장 인 천 > 을 기억합니다

< 굿 모 닝 인 천 > 을 기록합니다

오늘, <굿모닝인천>이 존재하는 이유,  
어제, <내고장인천>이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진짜 인천'을 기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내고장인천>을 찾습니다

<내고장인천> 소장 이벤트

**내가 바로 '인천 기록자'** <내고장인천> 1994년 1월 창간호부터, 1995년 12월호까지 그리고 1997년 1~3월호를 실물로 소장하고 계신 분은 아래 메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 보내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 굿모닝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3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진현성 꼬마 시민(연수구 해송로)



## 마법처럼 빛나는 모든 순간 ‘제1 행복도시 인천’

시민이 함께하기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 주민 등록 인구가 최초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00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인천의 최종 목적지는 ‘제1 행복도시’입니다. 마법처럼 빛나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함께합니다.

<굿모닝인천>의 표지 모델이 되어주세요!

2024년 <굿모닝인천> 표지의 주인공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 gmi2024@naver.com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다다랐음을 알려주는 반가운 조형물

# 인천은 [ 미래를 여는 문 ] 이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특·광역시 중에서는 1980년 부산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가 줄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다른 도시들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은 동서남북, 신도시와 원도심 할 것 없이 점점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원도심은 다시 생동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의 자랑이 됐고, 청라국제도시 역시 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며 주변 도심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대형 리조트 개장 등 호시절을 맞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의 국제화에 큰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기에 인천은 미래를 여는 문이다. 저마다의 목적지와 목표를 갖고 인천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 준다. 세계와 호흡하며 더 큰 미래를 그리는 도시, 성별과 나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꿈꾸고 실현하는 도시, 모든 이의 멋진 무대가 되어주는 인천이 자랑스럽다.



글·사진 최옥희 사진작가

MARCH 2024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3



굿모닝인천 웹진



오디오북 듣기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4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강성욱(대변인)

편집주간 한영진(홍보기획관)

편집장 임성훈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임학현·최준근·유승현·박재현

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04	인천 미소 표지부터 남다른 <굿모닝인천> 외	40	문화 캘린더 백쇼 외
05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손꼽아 기다리는 ‘굿모닝인천’	42	시민 시선 새 학기 풍경
06	인천에서 인천으로 봄날, 학교 앞 풍경	44	공약 달성 인포그래픽 시민과의 약속
10	제1 행복도시① 숫자로 보는, 행복도시 인천	46	이미지 뉴스 투자 유치
14	제1 행복도시② 300만+ 나도 인천인이다	48	시정 뉴스 시민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 외
18	화보 영흥도 진두향의 봄	51	땅 이름 이야기 남동·남동구
22	사람+사람=?! 인천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52	의정 뉴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 외
26	요즘, 인천 행복한 견생·요생	54	컬러링 인천 강화 석도도 칠면초 군락지
30	굿인이 만난 사람 독도 가수 서희	56	인포 박스 정년퇴직 근로자 채용하고 인센티브 받아요 외
32	3·1운동 특집 과거와 대화하는, 인천창영초등학교	58	시민 행복 메시지 행복도시, 담론이 아닌 실제로
34	내가 사랑하는 인천 윤정미 사진작가	59	인천사진관 의미심장한 역사 지대를 걷다
38	문화 줄 인 아트센터인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홍보기획관실 032-440-8306



<굿모닝인천>과 함께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굿모닝인천> 3월호가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 앞, 아이들의 봄 햇살 같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활짝 기지개를 켜는 동심이 봄을 닮았습니다. 섬과 바다에도 봄물이 흠뻑 올랐습니다. 겨우내 한적했던 섬이 제철 맞은 봄것들로 풍요롭게 깨어납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희망적 지표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00만 시민’, ‘100조 경제 시대’, ‘제2 경제도시’ 등 우리 시를 수식하는 숫자들을 통해 ‘제1 행복도시’로 가는 길을 엿보았습니다. 또 백영규와 로이스 등 반짝이는 음표와 노랫말로 인천을 그려내는 싱어송라이터 2명의 만남을 주선,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3·1운동의 달을 맞아 독도 노래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독도 가수 서희를 만났고, 개교기념일을 11년 앞당긴 ‘인천 3·1운동의 발상지’ 인천창영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의 흥미로운 풍경도 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이 가기 전에 <굿모닝인천>과 함께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표지부터 남다른 <굿모닝인천>

2024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굿모닝인천> 표지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월 ‘짠!’ 하고 등장한 3남매도 좋았고, 추운 날씨에 빨개진 코로 인천의 행복 지도를 그린 2월호 표지의 여자아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역시 <굿모닝인천>’다웠습니다.

이주연 미추홀구 용오로

책으로 이어진 30년 인연

책연, ‘책으로 이어진 인연’이란 뜻이지요. <굿모닝인천>이 30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닌 책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굿모닝인천>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특별했구요. 특히나 오랫동안 책자를 수집해온 열혈 독자의 사연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굿모닝인천>과 책연을 시작하려 합니다.

송해지 계양구 양지말1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결혼도 출산도 벌이도 줄어드는 요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천시의 정책이 반갑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진정한 신뢰가 쌓이는 법이니까요.

민유란 남동구 은봉로

<굿모닝인천>에 은빛 물결 넘실대길

<굿모닝인천>이 더 젊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젊은이들도 인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 기대감도 듭니다. 여기에, 실버들을 위한 내용이 보장된다면 금상첨화일 듯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 보다는 책이나 신문으로 정보를 얻으니까요. 친절하게 집으로 배달되는 <굿모닝인천>에 실버들을 위한 은빛 정보가 담기기를 고대합니다.

강원자 부평구 주부토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굿모닝인천’

글 이명식 독자(안산시 단원구)

땃줄을 떼어 낸 흥터가 채 아물기도 전, 강보에 싸여 답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인천과의 첫 인연이었다. 어느덧 훌쩍 자라 석탄 연료로 움직이던 추억의 수인선 증기 기관차를 타고 남인천역에 내려 고잔동과 화평동 이모 댁을 자주 들락거리곤 했다. 그 시절 내게 인천은 ‘원더랜드’였다.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인천에서 다니며 끈끈한 연을 이어갔고, 그렇게 몸과 마음 모두 인천이라는 도시와 맞닿았다. 다 큰 어른이 된 어느 날, 풋풋했던 젊은 날의 기억 가득한 인천 원도심의 이야기를 따라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섰다. 그곳에서 처음 <굿모닝인천>을 만났고, 곧바로 열혈 구독자가 되어버렸다. 매월 초중순이면 친절하게 집으로 찾아오는 반가운 친구 <굿모닝인천>. 언젠가는 모교 교장 선생님이로 부임한 고교 동창이 책에 소개된 것을 보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엇그제도 어김없이 찾아온 <굿모닝인천>을 가족들과 함께 본 뒤 소중히 간직하는 중이다. 내 마음 속 인천 그리고 그 인천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굿모닝인천>을 열렬히 응원한다!

<굿모닝인천> 마니아를 기다립니다!

매월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코너에 소개될 시민과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의 인연, 추억, 고마움 등 어떠한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인천은 깊다. 그 역사는 인천 사람들이 살아낸 시간이다. 인천 곳곳에 깃든 저마다의 삶과 기억, 숨은 이야기를 찾아 기록한다. ‘인천에서 인천으로’는 잊고 있던 인천의 삶,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이맘때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네모반듯한 학교 건물, 흙먼지 날리며 친구들과 뛰놀던 운동장, 보물창고 같던 학교 앞 문방구….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오늘 학교 앞 풍경은 많이도 변했다. 하지만 어른도 아이도, 기다리는 사람도, 찾는 이도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여전히 봄날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취재 영상 보기

‘그대  
앞에  
봄  
이  
있다’

봄날, 학교 앞 풍경

두근두근,  
학교 가는 길

봄은 스프링Spring이다. 여기서 ‘톡’, 저기서 ‘톡’ 온 세상에 새 생명이 솟아오른다. 아이들의 꿈도 기지개를 켜고 활짝 깨어난다. 새 계절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아지랑이가 피듯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날, 반딧반딧 윤기 나는 노트와 새 책가방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던 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엔 어찌나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던지. 그리고 문방구 앞을 서성이며 보물찾기하던 오후의 하룻길…. 그날의 설레는 마음을 따라, 오래된 동네 학교 앞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란 친구가 있는데, 같은 반이 돼서 망했어요. 저한테 자꾸 개똥이라고 놀려요. 근데 개도 사실 군밤 머리예요. 밤톨이….”, “우리 셋은 새 학년이 되면 헤어지는데, 뭐 괜찮아요. 애네 둘은 사귀거든요.” 옆에 있던 여학생이 다급히 친구 입을 막는다. “야! 비밀이잖아.” 뺨 앞 얼굴에 분홍빛이 수줍게 번진다.

남동구 소래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이제 4학년이 되는 세 친구를 만났다. 가까이 있는 논현초등학교에 다니는 은수, 서운, 강희. 새 학년을 맞는 기분을 물었는데 이야기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도 아이들은 평범한 일상에 깃든 ‘진짜 행복’을 안다. “친구들과 떡볶이를 맘껏 먹어서 신나요.” 찡긋 웃는 콧잔등 위로 봄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는다.

조금 더 자란 아이들은 제법 의젓하다. “이제 6학년이 돼요. 조금 멀리지만 성장하는 거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죠.” 논현초에 다니는 수민이와 은서. 둘도 없는 단짝이라는 두 학생이 서로에게 하고픈 말을 전한다. “지금껏 추억을 쌓아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자.”, “다른 반이 됐다고 나 모른 척하면 안 돼.” 까르르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찰랑거린다. 최고 학년 누나들도, 아이는 아이다.

이 봄,  
햇살 같은 아이들

떡볶이 한 점시에도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아이들.  
논현초 수민이와 은서(아래)



인생의  
새 학기



소래초 앞 ‘에바다떡볶이’ 대표.  
양준석, 조경희 부부

학교 앞 작은 분식집,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인생을 연다. 양준석(60), 조경희(58) 부부는 한 달 전 이 가게를 이어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남편은 신도시의 도로 녹지를 조성하는 계약직으로 일하다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을 맞았다. 아이가 다섯에 막내가 이제 겨우 열세 살이다. 다시 일해야 했다. 집안일만으로 벅찬 아내도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나섰다. 부부는 말없이 음식을 만들다, 이따금 아이들을 보며 빙긋이 웃는다. 집에 있는 자식들을 떠올리리라.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막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때 해줄 수 없어 미안하고, 엄마 아빠 대신 동생들을 챙기는 큰아이들에겐 고마우면서 애똥한 마음이 든다. 그래도 가족이 있기에 살아가는 오늘이 행복하다. 부부에게 장사 일이 목숨줄이지만 마음 씩씩이는 그 면면이 넉넉하기만 하다.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요. 설사 그날 적게 팔더라도 ‘오늘 하루도 잘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요.” 부부의 꿈은 작고 소박하다.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것. 이 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이렇게 작은 소망에서 비롯된다.

논현초 은수, 서운, 강희





어른이 될 아이와 어른이 된 아이,  
창영초를 나온 민지와 아빠(왼쪽).



창영초 아이들의 영원한 이모, 김학자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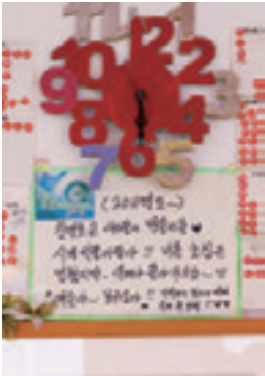
생에  
아름다운 날들

시곱바늘은 멈췄지만, 추억 너머로 시간은 흐른다. 동구 창영초등학교 앞에 하나뿐인 분식 집, ‘이모네 주먹밥’. 그 집 한편엔 고장 난 시계가 걸려 있다. 13년 전, 창영초 아이들이 작고 여린 손으로 만들어 김학자(71) ‘이모’에게 선물한 것이다. “애지중지 다뤘는데, 어느 순간 시계 밥을 쥐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어찌나 서운하던지. 내겐 아직도 책각책각 시계 소리가 들려.” 맑고 커다란 아이들의 눈망울도 눈에 선하다.

자그마치 13년을 한자리에 있었다. 이제 어른이 될 아이들과 어른이 된 아이들이 손잡고 찾아온다. 창영초를 나온 민지 아빠도 이날 딸과 함께 분식집을 찾았다. 후미진 골목이 옛이야기로 오랜만에 생기가 돈다. 1980년대 오전·오후반이 끝나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어느 가게나 학생이 바글바글했어요. 50원, 100원 하는 떡볶이 맛이라도 보려면 줄을 서야 했지요. 그때가 좋았어요.”

‘희생아~ 학교 가자!’ 이른 아침 집 앞에서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험레벌떡 학교로 뛰어가곤 했다. 전학 와 처음 만난 짝지는 평생 짝궁이 됐다. 싱그러운 봄날이었다.

이모의 나이는 어느덧 70을 넘어버렸다. 이제는 할머니라고 부르라 일러도 아이들은 한사코 이모라고 한다. 돌아보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봄처럼 짧게만 느껴진다. 그만큼 모든순간이 아름다웠다. “이제 개학하면, 아이들이 몰려들 거야. 내 귀가 아프도록 깔깔대며 웃고 떠들겠지. 여기가 애네들 안방이라니까.” 다시 만난 아이들은 한 뼘 더 자라 있을 것이다.



창영초 아이들이 이모에게 준 선물

학교 앞 문방구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에게 보물창고다. 빼곡히 진열된 형형색색의 문구와 장난감에 두 눈을 반짝이며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미추홀구 용현초등학교 길 건너에 있는 대성문구사. ‘초일류 울트라 슈퍼 캡송 나이스 베리 베리 짱’이란 문구와 함께 간판에 새겨진 캐릭터는 20년 세월의 더께만큼 나이 들었다. 최광민(69), 손경선(66) 부부의 시간도 그만큼 흘렀지만 마음은 늘 푸릇푸릇하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아이들이 날마다 새로운 인사를 건네기 때문이다. “세상이 변했어도, 아이들은 여전히 순수하고 예뻐요. 아이는 아이답게 밝고 맑게, 지금 모습 그대로 자라면 좋겠어요.”

이름은 못 외워도 얼굴은 다 기억한다. 훗날 어른이 되어 찾아온 아이도 한눈에 알아본다. 그러면 반가워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짓기도 한다. 유년의 기억을 따라 떠오르는 인연은 애뜻한 법이다.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일대 문방구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몇 년 전, 마지막까지 함께하던 문방구가 문 닫자 아내는 며칠을 앓아누웠다. “결에서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랐는데…, 우리만 덩그러니 남아버렸어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며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오늘도 햇살이 깨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다. 찾는 이는 많지 않아도, 한 학생이라도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으면 된다. 이 순간도 학교 앞 오래된 문방구는 지나온 날처럼 문을 활짝 열고 아이들을 기다린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노랫소리처럼 들려올 것이다. 지금이 생에 아름다운 봄날이다.



지금,  
우리의 봄날



대성문구사 대표, 최광민, 손경선 부부.  
문방구 사장님은 지금도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다.(위)  
학교 앞 문방구도 여전히 아이들의 보물창고다.

아이답게 맑고 순수한 용현초 아이들,  
모처럼 함께 학교 운동장을 맘껏 뛰었다.



# 행복도시 이치로 가는 길, 숫자로 엮는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제1 행복도시 인천’을 향해

도시는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의 목적은 그 공간에 속한 도시 구성원, 즉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삶의 질이 높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행복도시’라 할 수 있다. 사실 행복이란 용어 자체가 추상적 개념이기에 행복도시 또한 계량화를 통해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행복도시’를 구체화한다면 ‘시민의 건강, 안전, 편의, 문화, 교육, 환경,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바로 우리 시의 시정 목표다. 최근 몇몇 숫자들이 인천의 수식으로 새롭게 등장

했다. ‘인구 300만 도시’, ‘GRDP 100조 도시’, ‘제2 경제도시’ 등이다. 물론 이들 숫자가 행복도시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행복도시’의 필요조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임은 분명하다. 인구 절벽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도시, 높은 경제성장률로 타 도시의 부러움을 사는 도시. 바로 인천의 현주소이자 행복도시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유의미한 숫자들이 아닐 수 없다. ‘제1 행복도시, 인천’, 그 초석이 하나씩 놓이고 있다. ‘도시+X=행복도시’라는 방정식을 채울 숫자와 함께….



## 인구 300만 명

인구 절벽 시대에 도시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는 각별하다. 우리 시 주민 등록 인구가 최초로 300만 명을 넘어선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 시각의 우리 시 주민 등록 인구는 300만 43명이다. 외국인 8만 1,016명을 포함하면 총 308만 1,059명이다. 인구 현황은 주민 등록 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해 산정한다. 이로써 우리 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300만 인구 도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로선 인천을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300만 도시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300만’이라는 숫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우리 시의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우리 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3만 96명이 늘었다. 최근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기간 대구시도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하긴

했으나 ‘경북 군위군’ 편입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특별·광역시는 우리 시뿐이다. 도시의 인구는 도시의 발전 및 위상과 직결된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문화적 기회는 확대된다. 또 도시 인구 증가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한다. 물론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 인구 증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심각하다. 우리 시는 이런 점을 고려, 제물포르네상스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제 우리 시의 몸집이 커졌다. 시민들의 자부심도 커졌다. 이 자부심은 도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서적 인프라다. 연대와 화합을 이끄는 동력이자, 우리 시가 구현하고자 하는 ‘300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원천이기도 하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목표가 ‘300만’이라는 숫자로 더욱 선명해졌다.

# 3,000,000





100,000,000



##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도시는 상업, 산업, 금융, 무역 등 경제 활동이 집중되는 곳이다. 경제 활동의 주체는 시민이다. 최근 ‘100조’란 숫자가 인천이라는 도시의 경제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시가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100조 시대를 열었다. GRDP는 일정 기간 정해진 경제 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 합이다. 경제 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되는 중요 경제 지표다.

지난해 12월 22일 통계청 공표(202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 시의 2022년 GRDP는 2021년과 비교해 5조 8,000억 원이 증가한 104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우리 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성장률(2.6%)을 크게 웃도는 6.0%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6%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도 우리 시의 경제는 역동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GRDP를 인천 지역 추계 인구조로 나눈  
1인당 GRDP는 3,529만 원으로 전국 평  
균인 4,195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시, 서울시, 세  
종시에 이어 4위다.

우리 시는 이번에 공표된 2022년 지역총  
생산, 지역총소득, 지출 관련 주요 경제  
지표를 분석해 경제 정책 수립 시 반영하  
고, 나아가 도시 및 산업 간 경쟁력 연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땀이 더해지고 더해져 합산된  
'100조', 이 숫자는 대한민국 도시 서열  
의 파괴를 가져왔다.

66



## 제2 경제도시, 사·인·부·태의 부활

우리 시의 인구수가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No.3라면 경제 측면에서는 단연 No.2다. 우리 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우리 시가 부산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 경제 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시는 2017년에도 서울에 이어 GRDP 2위에 올라선 적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부산에 밀려 3위에 머물던 중이었다. 우리 시가 GRDP 100조 원 시대를 열면서 서·인·부·대(서울, 인천, 부산, 대구)의 부활을 알린 셈이다.

아직 대한민국 3위에 랭크돼 있는 인구 수 또한 증가를 면에서 타 특별·광역시 의 추종을 불허하는 만큼, 2위 등극은 시 간문제다. 통계청이 2022년 5월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35 년이면 우리 시의 인구가 부산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구뿐 아니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는 도시가 바로 우리 시, 인천이다. 현시점에서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1883년 제물포항 개항 이후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우리 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예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왔다.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 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했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구역을 2군·9구로 변경하는 게 골자로,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 시에 ‘제1 행복도시’의 밑그림인 새로운 ‘행복 지도’가 그려지는 셈이다.

우리 시는 또 행정 체제 개편과 맞물려 중·동구를 중심으로 한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을 추진한다. 인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으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300만’, ‘100조’, ‘2’는 그저 숫자가 아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인천을 움직이는 동력의 최소 단위다. 이들 숫자를 뛰어넘는 숫자, 보다 역동적인 숫자를 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2





취재 영상 보기

# 300만+

나도 인천 사람이다

## “인천 사람이라서,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300만+ 인천인’, 양디, 솔레몬, 데이자, 워런(왼쪽부터). ‘우리는, 인천’이다.

인천시 주민 등록 인구가 최초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인천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도 8만 1,016명에 이른다. 모두가 인천 사람이다. 모국어보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자연스럽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인천을 잘 알며 누구보다 사랑한다. 국적도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로 하나 되는 ‘300만+ 인천 사람들’을 만난다.

다채로운 빛과 색이 어우러진 모자이크. 그 안에 오롯이 반짝이는 ‘제1 행복도시 인천’이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66

300만 인천 시민과 8만 외국인이 하나를 이루는 모자이크.

빛나는 순간순간, 우리는 함께한다.

“인천 사람이라서, 난 행복합니다.”

눈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인천은 늘 아침이다.

굿모닝부터 굿나잇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한 도시, 인천.

“인천 사람이라서, 난 행복합니다.”

99

### ‘1,000만 인천’의 고향

고향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태어나 자란 곳보다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도시를 진정한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바다 건너 수많은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인천은 고향 같은 도시다.

2024년 1월 29일 오후 6시, 우리 시의 주민 등록 인구가 최초로 300만 명(300만 43명)을 넘어섰다. 인천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외국인도 8만 1,016명에 이른다. 인천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세계를 품어 왔다.

1883년 제물포항이 열리고 세상은 바뀌었다. 힘으로 밀어붙인 개항이었지만,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역사를堂堂히 꽃피웠다. 꿈꾸고 이루고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1902년 우리나라의 첫 이민선에 오른 102명 중 인천 사람은 86명에 이르렀다.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간절한 소망은 120년의 기다림 끝에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빛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 300만 인천 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1,000만 인천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인천은 돌아온 이들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어머니의 품이자, 꿈을 안고 떠난 이들의 삶의 터전, 또 하나의 고향이다. 국적도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인천’. 다른 듯 닮아있고, 네가 아닌 나, 우리로 하나 되는 ‘300만+ 인천 사람들’을 만난다.



누군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는 꿈을 찾기 위해 인천으로 모여든다.  
300만 인천 시민과 8만 외국인이 하나로 스며들어  
서로에게 꿈이 되고 있다.



DÉYJAH

데이jahDéyjah  
(23·미국)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타대 학생

꿈으로 반짝이는 행복

햇살 좋은 오후,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선다. 송도국제도  
시 반짝이는 하이라이즈 빌딩 숲 사이로 푸르게 빛나는  
자연. 그 풍경을 바라보다 뷰파인더 너머로 찰칵, 가슴에  
새긴다.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를 그는 사랑한다.  
데이jahDéyjah, 한국 이름은 하루. 친구가 ‘Day’에서 따 지어  
줬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에서 미디어를 전공  
하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는 ‘부산행’. 가장 좋  
아하는 한국 배우 공유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첨단 스마  
트시티 송도국제도시의 매력에 이끌려 인천으로 왔다, 사  
람들에게도 꼭 빠졌다. “바다를 메워 만든 기회의 땅은  
새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  
하지요. 저를 오랜 친구처럼 맞아주었어요.”  
처음엔 낯선 나라가 두렵기도 했다. 지금은 살아갈 날들  
을 인천에 머물고 싶다. 학교를 마친 후 일을 찾고 영주  
권도 취득하는 게 소망이다. 먼 훗날엔 영화인으로 성장  
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스크린에 펼치고  
싶다. 미래를 꿈꾸는 그의 눈빛이 행복으로 반짝인다.

300만+ 나도 인천인  
“인천 시민이 300만 명, 외국인 인구도 8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제  
도시로서 미래가 밝기에 저 역시 인천에 오래도록 머물 겁니다.”

사람, 인연, 행복

“가끔은 제가 인천 태생 같아요. 고향 뉴질랜드에 가면  
낯선 기분마저 든답니다.” 파란 눈, 흰 피부의 워런Warren  
은 자신을 인천 사람이라고 스스로없이 말한다. 2001년  
에 인천으로 왔다. 이듬해 월드컵으로 온 도시가 붉은  
물결을 이뤘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오늘, 인천은 자랑스러운 나의 도시다. “세계 모든 사람  
이 인천에서 처음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다들 놀라워하  
죠. 서울? 아니에요. 인천이 뉴욕만큼 멋지다고들 말합  
니다.”  
23년,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인천과 인천 사람들이 자  
신을 선택했다’고 그는 말한다. 도시는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만들어 간다. “겸손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함께 내  
일을 꿈꾸고 이루는 사람... 인생에 남을 좋은 사람들을  
인천에서 만났어요. 그들이 제가 떠나지 않고 이 나라,  
이 도시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결엔 첫눈에 반한 모습 그대로 ‘미소가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살  
아가는 매 순간이 행복하다. 미래를 꿈꾸며 인천으로 왔  
던 오래전 그날처럼, 그의 하루하루는 오늘도 새롭다.

300만+ 나도 인천인  
“인천이 계획하고 이뤄가는 일과 함께 300만 인천 시민과 8만 외  
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국제도시입니다.”

워런Warren  
(45·뉴질랜드)  
‘더 신더 바’ 대표

WARREN



YANG DI

양디楊迪·Yang di  
(38·중국)  
번역가

각자 빛나는, 행복 모자이크

‘인천 외박이’, 중국 장쑤성江苏省 출신의 양디楊迪 씨는 자  
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인천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토박  
이를 이르는 말이란다. 14년 전, 중국으로 유학 온 남편  
을 만나 삶의 터전을 옮겼다. 인천은 이제 몸과 마음이  
머무는 ‘집’이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딸아이를 낳아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아름다운 인천 곳곳으로 가족  
여행도 떠났다. 남편이 승진하던 날, 연수구에 내 집을  
마련하던 날은 또 어찌 잊으랴. 중국과 교류하는 현장에  
서 통번역사로 발로 뛰던 날들도 어제같다.  
오늘 인천 시민의 인구는 300만 명, 함께하는 외국인은  
8만여 명에 이른다. 이 거대한 도시의 일원으로 살아가  
며, 그는 어떤 행복을 꿈꿀까? “한 나무에 똑같은 나뭇  
잎이 없듯이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300만 인천 시민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모습 그대로 서로를 존  
중하며 어울려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죠.”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는,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히 눈부  
신,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있기에, 오늘 인천은 가득  
히 빛난다.

300만+ 나도 인천인  
“300만 인천이 300만 가지 문화가 꽃피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  
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인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은 늘 깨어 있다

바다 위 고속도로는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 인천대교. 그 다리를 두 다리로 온전  
히 걸었다. 2009년 인천대교 개통을 기념한 걷기 대회.  
단 한 번, 바닷길을 밟은 역사의 현장에 그가 있었다.  
23년 전에 고국 브라질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 처음 발  
디딘 땅은 서울이었으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꿈을  
실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자  
스마트시티인 송도국제도시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더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일구는 시공간 속에 그가 있었다. 새로운  
땅 위에 세워진 첫 아파트, 첫 호텔, 첫 식당... 도시가  
시작되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머지않아 공원과 빌  
딩 숲이 들어서고 기업과 학교, 사람이 몰려들었다. 머  
릿속 상상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다.  
“처음 꿈꾸었던 도시의 미래를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인천은 지금 이순간도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 도시의 탄생을 지켜본 그날처럼, 인천의  
역사는 항상 시작이다.

300만+ 나도 인천인  
“다양한 나라에서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도시가  
발전합니다. 제가 인천에 뿌리내렸듯이, 더 많은 외국인이 인천에  
정착하길 바랍니다. ‘제1 행복도시 인천’을 응원합니다.”

솔레몬Soleiman  
(51·브라질)  
채드워 송도국제학교  
국제관계처장

SLEIMAN





# 오래된 포구, 진두항의 봄

섬과 섬을 넘고 바다와 바다를 건너 줄지은 섬 끝자락에 영흥도가 있다. 물에선 꽃샘추위가 시작된 날, 섬에선 바람에도 봄 내음이 흥건하다. 이름 모를 가지마다 봄물이 흠뻑 오르고, 바다는 제철 맛은 봄것들을 올려 보내 풍요로운 계절을 알린다. 햇살도 푸근하고 눈부시다.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갯 잡은 주꾸미. 어부(강석문 씨)는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바다가 좋다  
섬에서만 볼 수 있는 봄의 제전, 뱃고사

하늘에서 본 진두항의 봄



## 봄 마 중

낙싹배가 춤춤하게 정박한 선착장, 바다에서 갯 잡아 올린 생선이 파닥거리는 수산 시장, 왁자지껄 오가는 흥정 소리...  
겨우내 한적하던 오래된 포구에 봄물이 흠뻑 올랐다.  
오늘, 첫 조업을 앞둔 배 한 척이 포구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바다를 업으로 사는 이들에게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시간.  
겸손히 자연에 머리 조아리며 풍어와 안녕을 기원한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한다.  
섬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봄의 제전'이다.  
바다는 봄것들을 올려 보내 풍요로운 계절을 알린다.  
부지런한 어부는 봄 주꾸미 낚시에 나섰다.  
“이제 잡히기 시작했어. 몸 풀려고 살살 하는 거야.”  
고단해도 바다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영흥도 사람들의 봄이 병글어간다.

### 영흥도 진두항, 해양관광 거점 국가어항으로 개발

영흥도의 아름다운 포구, 진두항이 '국가어항'으로 거듭난다. 총 478억 원을 투입(2019~2026년)해 어항시설과 관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중앙부두(158m), 남측부두(110m) 및 선양장(14m), 부잔교 3기 등이 만들어져 선박 약 200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되며 낚시레저 전용부두, 친수시설 등을 조성하여 '해양 관광 거점어항'으로 변신한다.



## 생명의 바다

사시사철 생명이 넘치는 영흥 앞바다는 주민들의 오랜 자부심이다.

특히 섬의 동쪽은 갯벌이 좋아 최고의 마을 어장을 갖추고 있다.

진두방파제를 지나 해안로를 걷다 보면 다다른 ‘하늘고래전망대’ 맞은편, 온몸을 뽀뽀 싸맨 아낙들이 설 새 없이 조새질을 하고 있다.

아직은 바람 끝이 차가운 3월, 새벽 바다에서 억척스럽게 캐 온 해산물을 바람막이 하나 세워진 노상에서 저녁까지 판다.



갯벌이 넓게 발달한 영흥도의 동쪽 바다  
사시사철 생명이 넘치는 영흥 앞바다는 주민들의 오랜 자부심이다.

하늘고래전망대 맞은편, 수산물 판매장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뽀얗게 살 오른 굴을 입안에 넣어준다.  
싱싱한 바다 냄새가 확 퍼진다.  
그야말로 ‘굴맛이 꿀맛’. ‘바다 맛’을 본  
물사람의 얼굴에도, 까맣게 그을린 섬 아낙의  
얼굴에도 봄 햇살이 환하게 웃는다.



진두항이 마주 보이는 바닷가 카페

## 푸른 봄, 깊은 바다

진두항이 마주 보이는 바닷가 카페, 넉넉한 바다가 제 품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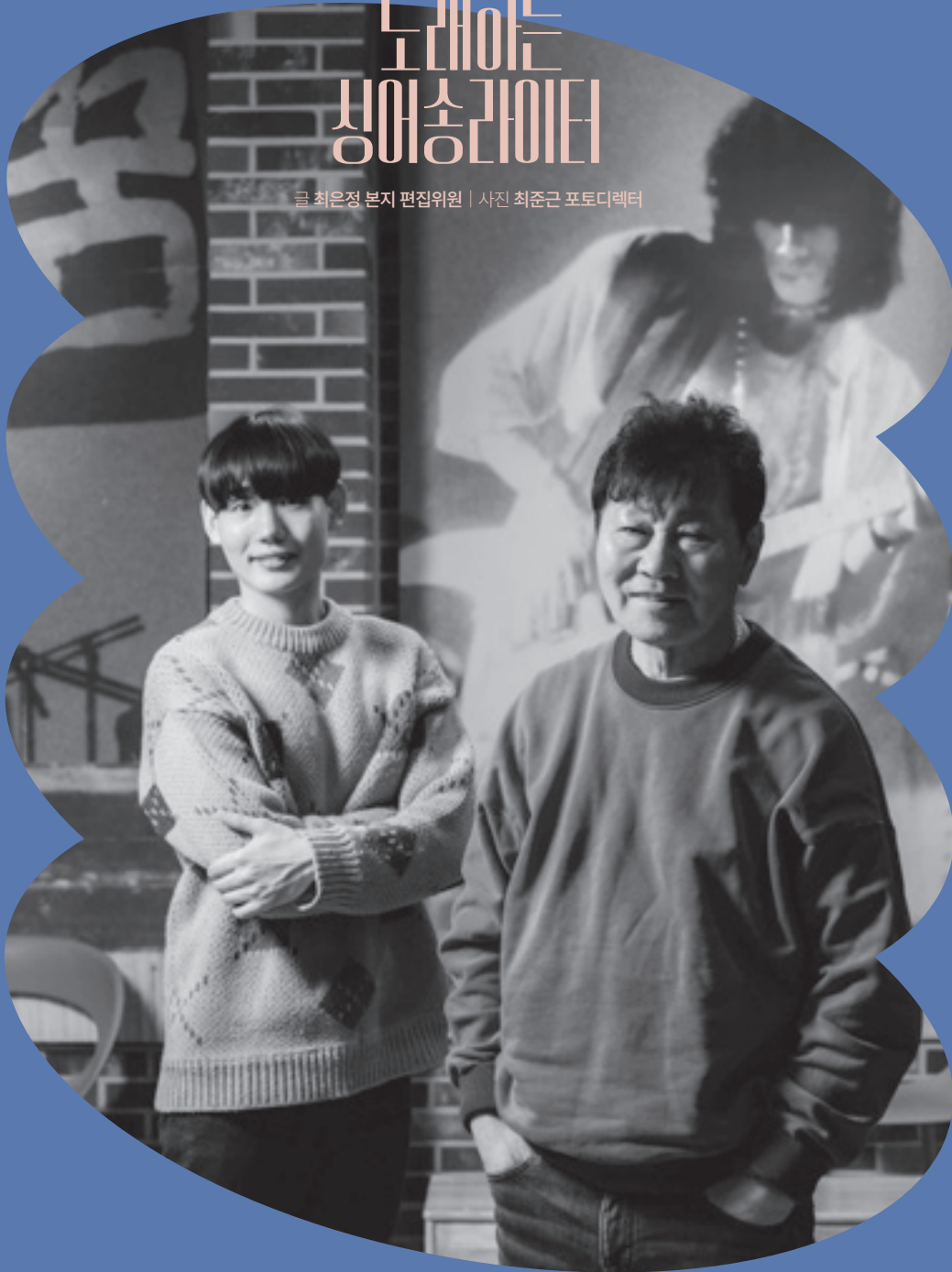
지친 마음 훌훌 털어놓고 잠시 쉬어 가란다. 바다로 통창을 낸 카페엔 서로를 도닥이는 눈길이 마주 보며 웃고 있다. 덩달아 마음이 느슨해진다. 짐을 내려놓고 봄 바다의 색과 소리와 움직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바다 향기를 가득 들이마신다. 들락날락. 바다는 바위에 제 몸을 몰아붙였다 창백한 포말로 부서진다. 하이얀 모래밭은 너른 가슴 펴고 부서진 잔물을 담담히 놓아준다. ‘굳게 달려드는 결심’도 있지만 ‘움켜잡은 것을 놓아주는 용기’도 있음을 바다에서 배운다. 그러쥐고 있던 나만의 작은 세상을 열어야 밀물 썰물이 인다는 것을.

영흥도의 봄을 가슴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내일을 너끈히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길어 올렸다. ‘고맙다, 바다야. 너와 내가 변치 않는다면 다음 계절에 또다시 만나자.’



# 인천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1988년 조용필은 서울을 노래했고, 1980년 프랭크 시나트라는 뉴욕을 찬양했다. 인천 사람들의 애창곡 ‘연안부두’는 그 보다 앞선 1979년 탄생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인천엔 우리들의 도시를 반짝이는 음표와 노랫말로 그려내는 음악가들이 함께 숨 쉬고 있다. 이 도시의 무엇이 그네들의 마음을 그토록 흔드는 걸까. 통기타 선율처럼 부드럽고 깊은 울림을 주는 포크 음악의 거장 백영규(72)와 인천을 무대로 꿈을 펼치는 청춘 싱어송라이터 로이스(32)에게 물었다.

## 대중음악의 도시, 인천

+

백영규는 생애 가장 빛나던 시절을 포크 음악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 한복판에서 보냈다. 새로움을 갈망하고 청춘을 노래했다. 이들의 음악을 자양분 삼아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케이팝<sup>K-POP</sup>은 오늘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음악사 반세기, 장르와 세대를 뛰어넘어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노래하는 두 음악가가 마주했다.



‘인천음악창작소’에서 조우한 가수 로이스(좌)와 백영규(우)

### Q —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영규** 영종도의 예단포 근처에 작업실이 있어요. 오래된 포구를 물들이는 노을빛에 이끌려 자주 걷게 되네요. 아담한 포구에 줄지어 있는 횃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 한 잔 기울이고, 틈틈이 작품도 쓰면서 지내고 있어요. 최근 ‘동구 데이트’란 곡을 완성했어요. ‘제물포구’로 바뀌기 전에 동구의 오늘을 기록하고 싶어 만들었어요. 기록하면 기억되잖아요.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로이스** 부지런히 무대에 올라 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송도의 ‘재즈257’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타임스페이스에서 게릴라 버스킹도 자주 해요. 아, 지난 연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20주년 기념식’에서 자작 곡인 ‘미러 시티’를 들려드렸는데, 인천 시민의 환호 속에 공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거든요.

### Q — 부평캠프마켓의 ‘인천음악창작소’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이 태동한 곳인데요. 두 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영규** 제 음악 인생을 담아낸 슬라이드 필름이 있다면, 그 첫 장은 부평에서 시작될 거예요. 부평서초등학교, 동산중·고등학교를 다녀서 매일 부평역과 제물포역을 오가며 음악적 감성을 키웠습니다. 1970년대까지 부평과 신포동에 크고 작은 음악 클럽들이 성업했고, 제 곁엔 늘 통기타와 음악 친구들이 있었어요. 형제 듀오 ‘유심초’와 통기타 튕기며 꿈을 키웠고, 故김강태 시인의 따스하고 감미로운 언어가 노랫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평에 오니, 그 시절이 그리네요.

**로이스** 저도 부평역에서부터 캠프마켓까지 걸어오는 동안 학창 시절을 떠올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다닌 보컬 학원이 이 근처예요. 열아홉 살 때 김건모, 클론 등이 식구로 있던 ‘김창환 사단’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평에서 춤과 노래 실력을 키웠습니다. 인천의 모든 음악가들에게 부평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이 태동한 이곳이 오늘의 음악가들에게 아지트가 돼주면 좋겠어요.



빛은 도시, 빛은 사람들



꿈과 낭만에 각박한 세상. 이 땅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만 간다.  
그럼에도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노래하고 빛을 낸다.  
우리들의 도시를 반짝이는 음표와 노랫말로 그려내는 이들이 있기에,  
음악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한 줄기 빛이 되어준다.



Q — 두 분의 음악에 인천이 어떻게 투영됐는지 궁금합니다

백영규 ‘추억의 신포동 1·2’, ‘인천의 성냥 공장 아가씨 1·2’, ‘꿈의 나라’, ‘송도로 가자’... 지난 2021년에 선보인 14집 앨범은 인천 노래로 꽉 채워져 있어요. 서울에서 활동했던 시절엔 잘 몰랐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경인방송에서 라디오 DJ를 하면서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낀 만큼 가까워진다고 하지요.  
제가 노래 제목을 ‘꿈의 도시’가 아니고 왜 ‘꿈의 나라’라고 지었을까요? 무엇이든 꿈꾸고 이를 수 있는, 나라만큼 큰 존재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인천의 성

냥 공장 아가씨’는 1917년 송림동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 성냥 공장의 역사와 여공들의 애환을 반추하며 만든 곡이에요.  
로이스 제 노래 ‘Better Life’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독특하고 독창적인 누군가/ 세련되고 역사 깊은 어딘가/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네 ... (중략) ... YEONSU. 한 폭의 그림 같지/ YEONSU. 날개가 달린 도시.’  
연수구를 유서 깊은 역사를 품고 새로운 내일로 힘차게 비상하는 꿈과 기적의 도시로 그려냈어요. 뮤직비디오에도 선학별빛도서관, 송도석산, 인천대교까지 다채로운 공간을 담았습니다.

Q — 그렇다면 이 도시의 매력과 힘이 될까요

백영규 ‘다양성’과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의 원동력 이죠. 드넓은 바다와 하늘이 펼쳐지고, 갯벌 위에 세운 기적의 땅엔 새로운 미래가 박동하고, 원도심엔 활기 넘치는 골목이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덕분에 제 노래도 ‘추억의 신포동’부터 ‘송도로 가자’까지 여러 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거겠죠.  
로이스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것들이 새로 생긴 것들과 기묘한 조화를 이루는 도시. 제가 나고 자란 석남동 강남시장의 옥탑방, 가수의 꿈을 키운 부평과 청학동,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신포동... 하나하나가 아름다우면서도 애뜻해요. 도시인들에게 추억과 그리움을 남기는 도시, 낭만적이지 않나요? 언젠가 인천의 ‘찐 매력’을 담아낸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Q —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백영규 수년 전부터 길거리 버스킹 공연과 ‘포크송 페스티벌’을 통해 인천 지역에 포크 음악을 확산시켜왔어요. 인천은 쟁쟁한 포크 가수들을 배출하고 대중음악의 발전을 이끈 음악 도시입니다. 이전 세대 가수들이 우리에게 포크 음악이란 낭만을 선물했어요. 그걸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변화는 있으되, 변함은 없어야 한다’. 매일 마음에 되새기는 글귀입니다. 숨쉬듯 새로움을 배우고 변화를 주고자 노력해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음악 축제로 나아갈 길을 모색 중입니다.  
로이스 인천은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면모를 차근차근 갖춰나가고 있어요. 음악과 낭만이 생동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 믿어요.  
인천을 무대로 꿈을 펼쳐가는 싱어송라이터로서, 버스킹이나 재능 기부 무대로 일상 속 음악 공간을 지켜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라 생각해 꾸준히 공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무대가 있는 바<sup>bar</sup>, 변화가의 광장, 공원의 작은 야외 무대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저의 오래된 믿음과 음악이 느리지만 견고하게 인천의 음악 지형을 바꾸리라 믿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백영규 ‘변화를 추구하는, 허나 변함 없는 음악가’로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이스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인천! 파이팅!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와 1978년 ‘순이 생각’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로도 제작된 ‘슬픈 계절에 만나요’, ‘잊지는 말아야지’와 같은 히트곡을 내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국민 가수. ‘추억의 신포동 1·2’, ‘인천의 성냥 공장 아가씨 1·2’, ‘꿈의 나라’, ‘송도로 가자’ 등 인천에 대한 짙은 마음이 담긴 노래를 지속 발표하고, ‘포크 음악 페스티벌’ 등 공연 기획자로도 중형무진하며 포크 음악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2021년 연수구의 아름다움을 담은 노래 ‘Better Life’, 송도를 배경으로 한 시티팝 ‘미러 시티’ 등이 인기를 끌며 ‘연수구의 가수’로 불린다. 버스킹 공연, 지역 축제 등 로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세대를 넘나드는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음악 활동뿐 아니라 연수문화재단의 청년예술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위원, 지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인천의 미래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동파 음악가.



반려  
동물을  
위한

마음

영흥도 고양이역의 김영재 집사와 그의 고양이 친구들



세상이 변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국민의 4분의 1이 반려가족이 되면서 일상의 풍경과 문화가 달라졌다. 명킨도너츠, 견모차, 땡땡런, 개냥이, 펫티켓 등은 모두 반려동물과 관련된 신조어들이다. 반려동물 예능과 웹툰도 인기다. 인간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 반려동물을 위한 ‘집사’를 자처하며 행복한 견생·묘생을 위한 행동에도 앞장서는 인천 사람들을 만나봤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디렉터



취재 영상 보기



- 1 — 김영재 씨의 아침은 고양이 세수로 시작된다. 여든 마리와 모두 눈 맞추며 인사하고 건강 상태를 살핀다
- 2 — 바닷가 기차역이 그들이 보금자리다



*I love my pet*

사랑의 묘약 猫藥

영흥도 고양이역카페,  
김영재 집사

포근한 봄바람 타고 물결 따라 달려간 섬, 영흥도. 섬 마을 바닷가에 드넓은 놀이터와 마당, 분홍색 기차가 놓인 고양이들의 천국이 있다. 고양이 보호소이자 카페인 '영흥도 고양이역'은 김영재(48) 씨와 여든 마리 냥이들의 포근한 보금자리다. “고양이 세수로 하루를 시작해요. 한마리도 빠짐없이 눈 마주치며 인사하고 건강상태를 살펴요. 제가 육군 수색대 출신인데, 체력적으로는 지금이 더 힘들어요. 하하하.”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시작한 그가 너털웃음을 짓는다. 도심에서 우연히 뒹에 걸린 고양이를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됐다. 힘든 시기에 만난 고양이가 그의 인생에 비타민이 되주었다. 그때부터 거리의 유기묘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고양이 식구가 늘자 민원으로 계속 이사를 반복해야 했지만,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3년 전 고양이 식구들과 그의 고향 영흥도로 들어왔다. “처음에 서른 마리였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나 교통 사고를 당한 아이들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다 보니 어느덧 여든 마리 대가족이 됐네요.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해요.” 화창한 봄 날 아침, 고양이 세수를 마친 냥이들이 그의 곁을 맴돌며 장난을 건다. 아름다운 바닷가의 고양이 천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에겐 사랑이란 묘약이 있으니까.





요즘, 인천

행복한 견생 모습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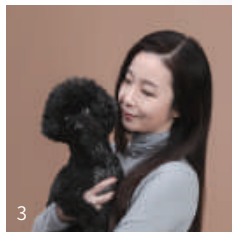
- 1 — 소소리 사진관에서 행복한 순간을 남긴 반려견
- 2 — 검정 곱슬이 매력적인 ‘먹물이’
- 3 — 이해령 작가와 그의 반려견이 카메라 앞에 섰다. 오늘이 그들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 오늘이 가장 행복한 순간

소소리 사진관,  
이혜령 작가

멍킨도너츠(간식), 견모차(유모차), 땡땡런(달리기 대회), 냥체공학(고양이가 쓰기 편안한)… 어디 이뿐이라. 반려견 전용 호텔과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생애를 사진으로 남기고자 하는 집사들도 늘어났다.

검은색 곱슬이 매력적인 ‘먹물이’의 견주 이해령(43) 작가도 그런 이유로 ‘소소리 사진관’을 열었다. “먹물이가 백내장에 걸려 시력을 잃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과 동물의 시간이 같지 않구나. 먹물이 어릴 때 사진을 많이 못 남겨둔 게 아쉽더라고요.” 소소리 사진관엔 매일 웃음 소리가 넘친다. 반려가족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는 소리다. 오늘은 그와 먹물이가 카메라 앞에 섰다. 매일 사진에 담아낸 사람들의 표정과 꼭 닮은 모습으로.



3



© 최준근 포토디렉터

### 반려동물 배변처리 스마트하게

우리 시는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기’를 공원 등에 설치했다. 월미공원, 신트리공원, 무주골공원, 해운공원 등 시내 13개 공원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소리 사진관 내부

You are not alone

###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인천시수의사회봉사단(YANA),  
이재필 단장

18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필동물병원’의 이재필(48) 원장은 4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자, 인천시수의사회 의료봉사단 YANA(You are not alone)의 봉사 단장이다. 유기견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난 ‘바니’, 안락사를 부탁하며 지인이 두고 간 ‘꼬꼬’를 차마 보낼 수 없어 그가 견생·묘생의 동반자가 돼주었다.

사람에 의해 길들여졌지만 결국 사람에 의해 버려진 동물들, 사람 손을 탄 반려동물들은 버려짐과 동시에 죽음의 경계에 놓인다. 야생성을 잃어 영역 싸움, 먹이 사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차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도 모른다. 이에 인천시수의사회 의료 봉사단은 인천 곳곳을 다니며 유기 동물들을 구조하고,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 접종 활동 등을 벌인다. 동물병원이 없는 승봉도, 신시모도 등 섬도 찾아간다.

사람에 의해 길들여진 그들의 생이 유기견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다.



유기견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재필 원장.  
안락사를 부탁하며 지인이 두고 간 ‘꼬꼬’를 보낼 수 없어 그가 돌보고 있다

### 명당이도 행복한 도시, 인천

우리 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반려동물산업, 제도 개선 등 4개 분야를 골자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 복지는 확대하고 유기는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 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 동물들이 안전한 입양처를 찾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사회화 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구 문학터널 관리동을 증축·리모델링해 2026년 하반기 문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2026년까지 총 1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반려동물 산업 관리와 제도 개선도 주요한 사업 추진계획 중 하나다.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 사료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간다.



## 독도를 노래하는 찐 인천인

- 국내 최초 독도 노래로 박사 학위 받아  
- ‘월미도’, ‘아! 인천항’ 등 인천 노래도 다수 발표



고려 시대 서희 장군은 거란족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되찾았다. 서희 장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논리에 입각한 탁월한 언변이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 인천에 살고 있는 그의 32대손이 독도를 놓고 담판을 벌이고 있다. 이름(예명)도 자랑스러운 조상에게서 따왔다. 이 32대손의 무기는 ‘노래’다. 독도 가수 서희(본명 서선택). 그가 수십 년간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며 천착해온 독도가 193곡의 노래로 집대성돼 세상에 나왔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사진 박재현 포토디렉터

66

신<sup>新</sup>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고 있는 독도 가수 서희 씨. 그는 최근 ‘대한민국 독도 노래 50년사 연구’란 논문을 발표해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의미있는 한 획을 그었다.

99

지난달 16일 경일대학교 강당. 학위 수여식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가 한 남성에게 의해 급반전됐다. 그가 ‘신<sup>新</sup>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오며 학위 수여식장은 이내 콘서트장으로 변했다. 초대 가수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는 박사 가운을 입은 어엿한 학위 수여자였다. 독도 가수 서희. 그는 이날 자신의 이력만큼이나 독특한 독도 사랑의 결과물로 학위를 받았다.

‘대한민국 독도 노래 50년사 연구’, 서희 씨의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이다. 그는 1967년 발매된 ‘독도의 섬지기’라는 노래가 한국 최초의 독도 노래라는 사실을 논문을 통해 공개했다. 또 193곡의 독도 노래를 발굴, 이들 노래를 시대별, 형식별, 내용별로 분류하는 한편 한국사 강사, 의사, 언론인, 스님 등 비<sup>非</sup> 직업 가수가 만들거나 부른 독도 노래도 찾아내 논문에 소개했다. 대중음악사에 유의미한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이 뒤따랐다. 그는 어쩌다 독도에 꽂힌 걸까.

인천 출신으로 방송국 레크리에이션 MC로 활약하던 그는 1990년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2집을 불렀던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가 원래 역사에 문외한이었어요. 그러다 전국의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역사 노래 부르기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 우리 역사 속 인물들의 업적이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노래가 역사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노래가 공부에 미치는 순기능을 절감한 그는 2006년 독도 문제가 불거진 뒤 ‘신<sup>新</sup>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게 되면서 독도 홍보 활동에 집중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초·중학교를 돌며 153회에 걸쳐 ‘독도사랑 나라사랑 콘서트’를 개최했다.

“어느 날 행사장 곳곳에 걸려 있는 독도 관련 현수막을 보면서 외국인들에게도 독도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알지만 외국인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외국어 버전의 독도 노래를 발표했지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공연할 기회도 생기더군요.”



- 1 — 경일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서희 씨
- 2 — 서희 씨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받은 ‘미국 대통령 봉사상과 골드 메달’

필리핀, 미국,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 및 행사를 통해 독도를 홍보한 것이 23회. 외국에서 초청이 오면 자비까지 들여 찾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독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경일대학교 대학원 지적학과에 입학했고 만학도로서 학구열을 불태운 지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 독도 노래 50년사 연구’라는 값진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 2022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대통령봉사상 & 골드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 송림동에서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인천 밖으로 거주지를 옮겨본 적이 없다는 그는 자신을 ‘인천을 사랑하는 찐 인천인’이라고 소개했다. ‘월미도’, ‘아! 인천항’, ‘미추홀 백제’ 등 3곡의 인천 노래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인천만의 특색을 담은 세계적인 축제가 고향 인천에서 열리는 꿈을 꿉니다. 인천은 그런 여건과 자격을 갖춘 도시예요.” 인천 주안의 작업실에서 그는 인천의 새 꿈을 노래하고 있었다.



- 과거와 대화하는 현재의 학교
- 개교기념일 11년 앞당겨져
- 왜곡된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맺은 결실

## 과거와 대화하는 학교

SINCE 1896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가 역사에 대해 내린 정의다. 인천창영초등학교는 이 정의에 가장 걸맞은 학교다. 100년 넘는 세월을 관통한 이 학교는 지금도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오가던 중에 최근 학교의 역사가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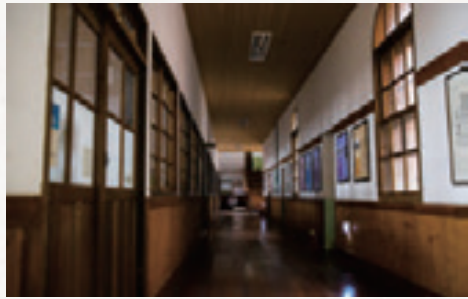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사진 안영우 포토디렉터

창영초등학교는 오는 3월 20일 의미 있는 현판식을 앞두고 있다. 학교의 역사를 11년 앞당기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현판식이다.

원래 창영초교의 개교일은 1907년 5월 6일로 알려져 있었다. 1906년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따라 1907년 설립된 ‘인천공립보통학교’를 창영초교의 출발점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3월 20일 학교에 새로 부착될 현판에는 개교기념일이 1896년 1월 22일로 새겨진다.

이로써 창영초교는 ‘인천 3·1운동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지위에 더해 ‘인천지역 최초 공립초등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현재 인천 최초 공립초교는 1896년 4월 1일 개교한 강화초교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동안 학계와 교육계 안팎에서는 창영초교의 개교 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조선이 1895년 공포한 ‘소학교령’을 근대 초등교육의 시작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뜻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역사의 가려진 부분이 베일을 벗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창영초 차건호 교장이 3·1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의 당시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6호인 창영초  
구<sup>특</sup> 교사의 내부 모습(위)

2024

창영초교의 개교 시기가 처음 공론화된 것은 ‘대한제국시대 인천 공립초등교육과 인천창영학교의 역사’란 주제로 지난해 4월 5일 인천 다락소극장에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다. ‘인천창영학교 발전을 위한 시민모임’, 창영학교 충동문화,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 이후 인천시교육청의 ‘인천교육역사 바로세우기’ 사업과 맞물려 왜곡된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 활발히 펼쳐졌다.

결국 보통학교령에 앞선 소학교령을 근거로 만들어진 ‘인천부 공립소학교’를 창영초교의 시초로 보고, ‘1896년 1월 22일 서임 및 사령, 인천부 공립소학교 교원 판임관 6등에 변영대를 임용한다’는 내용의 관보 기록 등을 토대로 창영초교의 개교 시기를 1896년으로 특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창영초교를 둘러싸고 벌어진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가 학교의 역사는 물론이고 인천의 교육사를 바로잡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차건호(55) 창영초교 교장은 “인천시립박물관과 시민단체 등의 뜻있는 분들에 의해 창영초교의 역사가 재조명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후에도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창영초등학교와 3·1운동

인천의 3·1운동은 1919년 3월 6일 창영초교 전신인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에 의해 시작됐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이 거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학교 학생들은 동맹 휴업으로 호응했다. 일부 주동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8일 3학년생 김명진·이만용·박철준·손창신 등은 학교 건물 2층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용 가위로 전화선을 끊어 경찰서와 연결된 통신을 차단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들고일어나면서 독립운동은 들불처럼 인천 곳곳으로 번졌다.

창영초가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발상지임을 보여주는  
3·1운동 기념비





근현대 소설 속  
인천을  
사진으로 읽다



글·사진 윤정미 사진작가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내 전시 풍경



인천 앞바다 갈매기를 촬영해 한옥 틀에 가둔  
‘인천 갈매기’ 시리즈



인천의 이야기가 담긴 근현대 소설 실물 책자

2008년경, 우연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근  
대 소설을 다시 읽게 됐다. 그때, 소설의 배경인  
근대에 존재하던 문제들이 오늘날 환경과 조건  
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함을 발  
견했다.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 또 사회에 내재  
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시대가 변해도 동일하  
다는 생각에 그해, ‘It Will Be a Better Day\_근  
대 소설’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

그 결과물인 ‘근대 소설’에 관한 연출 사진 작업  
을 2008년 두아트 갤러리에서 개최된 그룹전  
‘B-side’에서 처음 선보였다. ‘B-side’란 카세트  
테이프나 LP판의 A-side와 B-side에서 유래한  
단어로, 작가들마다 대표작이라 불리는 시리즈  
작업, 즉 A-side 외에도 그 작가의 사람들에게 알  
려지지 않은 작업 시리즈를 보여주는 전시였다.  
당시 나는 ‘핑크 앤 블루 프로젝트’로 알려졌다나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이후 근대 소설 작업을 추가해 2013년에 ‘갤러리  
담’에서 ‘It Will Be a Better Day\_근대 소설’ 시

리즈로 개인전을 개최했고, 개인적으로 설립한  
독립 출판사 ‘핑크애플루’에서 근대 소설 사진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어 2015년에는 전주의 ‘서학  
동 사진관’에서 동일 전시를 했으며, 2016년에는  
‘앵글에 담긴 근현대 한국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인천 중구에 자리한 한국근대문학관에서 개인전  
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사진으로 읽은 인천 근현대 소설’ 전시는  
한국근대문학관에서 ‘2020 한국근대문학관 기  
획전시’와 ‘인천문학기행’ 책에서 소개한 인천을  
배경으로 집필된 한국 근현대 문학 16편 중 15  
편 <빈상설>(이해조 지음, 1907), <송퇴금>(육  
정수 지음, 1908), <모란병>(이해조 지음, 1909),  
<재생>(이광수 지음, 1924), <인간문제>(강경애  
지음, 1934), <밀림>(김말봉 지음, 1935), <박명>  
(한용운 지음, 1938), <바닷가 소년>(한남철 지  
음, 1963), <중국인 거리>(오정희 지음, 1979),  
<포구의 황혼>(이원규 지음, 1987), <난장이  
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지음, 1975), <새  
벽 출정>(방현석 지음, 1989), <중국어 수업>(김

미월 지음, 2009), <모두 잠언>(김중미 지음,  
2015), <중국인 할머니>(백수린 지음, 2016)를  
읽고, 그 근대 소설의 인상 깊은 한 장면들을 각  
색해 연출 사진으로 제작했다.

이번 작업들은 촬영에 앞서서, 내 안에서 그 소  
설의 장면을 내재화하는 작업이 우선시됐다. 즉,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선정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  
서 어떤 옷, 어떤 소도구를 사용해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구상하는 단계가 가미되어 나로서도  
평소와는 다른 이질적이면서, 즐거운 제작 과정  
이었다. 연출에서부터 로케이션 구하기, 배우 캐  
스팅, 의상, 소도구 등을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  
등 과정보다 작업이 추가되어 힘들기도 했지만 하  
나의 종합 예술을 구성하는 듯한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며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촉발시켰다.

한국근대문학관의 멋진 기획으로 인천을 배경으  
로 한 훌륭한 한국 근현대 문학과 작가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또 대중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기

회가 생긴 점이 매우 뜻깊다. 또한, 그 문학 속 장  
면들을 사진으로 작업하며 시공을 초월해 존재  
하는 인간 본연의 문제군과 감정을 마주하고 표  
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은 스  
스로 한층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값진 시간이 되  
기도 했다.

66

소설 외에도 인천 앞바다 갈매기를 촬영해 한옥 창틀에 가둔  
‘인천 갈매기’ 시리즈는 전시 공간이 인천이라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한다. 이는 대학교 사진 수업 마지막 날,  
월미도로 촬영 갔을 때 느낀 낯설고도 신선했던  
감정과도 맞닿아 있다.

99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윤정미 사진전**  
전시 기간 4월 28일까지(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다음 날 휴관)  
운영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전시 장소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전시 자료 윤정미 사진작가 출판작 30여 점  
문의 032-765-0305, 032-773-3800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  
전시 미리 보기



전시 메이킹 영상 보기

인천을 다룬 근현대 소설을 사진으로 재해석한 윤정미 작가의 전시가 한국 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에서는 윤정미 작가가 한국근대문학관과 함께 선정한 소설 15편을 읽고, 그 소설 속 인상 깊은 장면을 선정해 사진 등으로 연출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12  
34

1F

① <박명> 한용운, 1938  
산전수전 다 겪은 여주인공 장순영이 비구니가 되어 절 앞에서 회한에 젖어 슬픈 표정으로 기도하는 모습.

② <모란병> 이해조, 1909  
모란 병풍 앞에서 여주인공 금선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장면.

③ <송뢰금> 육정수, 1908  
하와이 이민을 다룬 소설이다. 사진 속 이미지는 하와이 이민 전단지 보고 있는 김주사의 모습.

④ <모두 갇힌> 김중미, 2015  
‘모두 갇힌’은 아름다운 성장 소설이다. 사진은 서울에서 온 우주, 일 잘하는 광수 그리고 유정이 길을 걸으며 이야기하는 장면.

2F

⑤ <중국어 수업> 김미월, 2009  
인천 지하철 안에서 중국 어린이 두 명이 의자를 책상 삼아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 16개의 사진 중 이 사진만 합성 사진이다.

⑥ <포구의 황혼> 이원규, 1987  
분단 문학이며, 드라마로도 선보였다. 어부인 아버지는 병 안에 편지를 넣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당길이라며 바다에 병을 던진다.

⑦ <바닷가 소년> 한남철(한남규), 1963  
전쟁고아 소년이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쓸쓸히 앉아 있는 모습. 소설 속에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⑧ <인간문제> 강경애, 1934  
계란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는 주인공 선비, 소설 속에서는 계란을 귀여워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⑨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1976  
철거되는 집에 용역들이 들이닥치는데, 난장이 가족이 밥상을 차려놓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장면. 소설 속 난장이 일가가 이주하는 ‘은강’이라는 지역이 인천으로 보여진다.



5  
6 7  
8 9



성큼 다가온 이 봄, 예술 좀 ‘아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예술의 여정을 함께하는 문화 공간, ‘아트센터인천’이 올봄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서양 고전문학에서부터 클래식, 미술, 서예 등 다채로운 예술 교육 강좌와 함께, 시대의 지성을 만나보는 명사 특강까지. 아트센터인천이 시민 행복을 위해 차별화된 예술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해질녘 노을이 아름다운 아트센터인천에서 예술적 감성을 물들여보자.

글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이은경 주무관



아트센터인천 전경

## 예술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간, 아트센터인천과 함께

### 예술의 원류를 이해하는 여정의 첫걸음

예술의 모태인 서양 고전문학의 이해에서 출발, 박물관 세계 여행, 클래식 라운지, 서예 살롱을 순회하는 예술 교육의 여정을 함께 걷다 보면 자연스레 예술의 원류를 이해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아트센터인천의 예술 교육 아카데미는 성인과 어린이 대상의 정규 강좌와 명사 초청 좌담인 ‘대담한 대담’으로 나뉘며, 봄학기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 밖 공간에서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미술 프로그램 ‘꿈꾸는 화가(초등 1~2학년 대상)’가 지난해에 이어 소수 정예두 개 반으로 운영되며, 작곡 프로그램인 ‘꿈꾸는 음악가(초등 3~6학년 대상)’와 뮤지컬 프로그램인 꿈틀뮤틀 ‘헤어 스프레이’(초등 4~6학년 대상)’가 함께 개설된다. 참여의 기회를 얻은 어린이들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에게 수준 높은 현장 강의와 지도를 받게 된다. 예술의 세계를 탐험하며, 예술적 본능을 깨울 기회. 아트센터인천 예술 교육 아카데미가 보내는 초대장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 아트센터인천 예술 교육 아카데미 봄학기 정규 강좌

강좌 일정 3월~6월(강좌별 상이)

개설 강좌 총 7개(성인 4개, 어린이 3개)

수강료 18만~24만 원(강좌별 상이)

접수 기간 3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직전 수강생 한정 우선 접수 :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성인 강좌)

유의 사항 홈페이지 선착순 등록

세부 내용 홈페이지(<https://www.aci.or.kr>) 참조

문의 032-453-7237(오전 9시~오후 5시)



### 손열음&스베틀린 루세브 듀오 리사이틀 :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향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올봄 우리 가까이 찾아온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정교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로 호평받고 있는 세계적인 뮤지션 손열음과 스베틀린 루세브의 피아노-바이올린 협주 공연이 오는 3월 말 아트센터인천에서 개최된다. 인천 ‘2024년 앙상블&리사이틀 시리즈’의 첫 문을 여는 이번 공연은 두 음악가의 환상적인 호흡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뛰어난 음향으로 클래식 애호가로부터 사랑받는 아트센터인천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연 일정 3월 30일 오후 5시

티켓 가격 R석 6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공연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문의 032-453-7700

### 명사 특강 ‘대담한 대담’, 시대의 지성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시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생 잠언을 들어보는 ‘대담한 대담’이 5회에 걸쳐 선보인다. 다 함께 모인 공간에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내일을 향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 지혜의 숲에 잠시 머물러 우리의 인생에 심표를 던져주는 것은 어떨까? 따스한 위로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담’

강연 일정 4월~8월(전 회차 오후 7시 30분)

강연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7층)

#### 강연 내용

날짜	강연자	강연 주제
4월 18일	심용환(역사학자)	민주주의 역사와 경쟁력
5월 23일	정희원(의사)	느리게 나이 드는 삶 디자인하기
6월 13일	이호(교수)	죽음을 밝히는 법의학의 숨은 비밀
7월 18일	김지윤(소장)	내 삶의 긍정적인 관계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8월 15일	이금희(방송인)	이금희가 전하는 힐링 스토리

※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강연 진행 황순유(아나운서)

입장료 전석 2만 원

# Arts Center Incheon

홈페이지  
[www.aci.or.kr](http://www.aci.or.kr)

운영시간  
화~토 09:00 ~ 17:00

문의  
아트센터인천  
예술 교육 아카데미  
032-453-7237





CULTURE  
CALENDAR

03  
MARCH 2024

01 금

백쇼

필곤아소극장  
오픈런  
전석 2만 5,000원  
0507-1333-8525



온더플로우×마술쇼

온더플로우  
오픈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관람료 문의  
0507-1384-6998

별주부전

아띠홀  
10일까지 금~일 오후 1시·3시  
전석 2만 2,900원  
0507-1350-4222

사이언스 매직쇼

‘마술사 제이트의 과학 실험실’  
인천어린이과학관 1층 공연장  
1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석 2만 5,000원  
032-456-2500

따끈따끈 베이커리

루시드아트홀  
4월 27일까지 토~일 오후 2시·4시  
전석 1만 5,000원  
032-710-4907

어린이 마술쇼

미리내 마술극단 송도점  
8월까지 토~일 오전 11시, 오후 2시  
2만 3,000~2만 8,000원  
031-241-1238

06 수

마티네 콘서트 ‘신창웅의 뮤직 라운지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전 11시  
전석 2만 5,000원  
032-453-7700



08 금

가족극 ‘살아 어디 가?’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9~1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무료  
010-4847-6348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여행

오페라 ‘사랑의 묘약’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R석 2만 원, S석 1만 원  
0507-1373-3398

09 토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여행

피아노 콰르텟 ‘호두까기 인형’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R석 2만 원, S석 1만 원  
0507-1373-3398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여행

피아노 듀오 ‘피터와 늑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2시 R석 2만 원, S석 1만 원  
0507-1373-3398

10 일

김소희 플루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 원  
032-289-4275



14 목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 연주회  
‘화이트데이 콘서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1588-2341



16 토

2024 시네마 클래식  
‘꽃 피는 봄이 오면’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후 7시 R석 5만 원, S석 3만 원  
1588-2341

작곡가 시리즈 ‘베토벤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5시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032-453-7700



17 일

로비 콘서트 ‘마림바 듀오’

엘림아트센터 로비  
오후 2시  
전석 1만 원  
032-453-7700

20 수

2024 커피콘서트 I

빛과 소금 ‘오래된 친구처럼’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 5,000원  
1588-2341

22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0회 정기연주회 ‘아이 갓 리듬’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1588-2341

27 수

마실 ‘시네마 콘서트 빨간 풍선’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전석 5,000원  
032-439-5001  
070-8820-4038

29 금

마실 ‘시네마 콘서트 빨간 풍선’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전석 5,000원  
032-439-5001,  
070-8820-4038



인천시립무용단×부평문화재단

공동 기획 ‘○Ⅲ’(원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전석 2만 원  
1588-2341

30 토

인천시립무용단×부평문화재단

공동 기획 ‘○Ⅲ’(원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3시 전석 2만 원  
1588-2341

손열음&스베틀린 루세브 듀오 리사이틀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5시 R석 6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032-453-7700

이달의 전시

11<sup>th</sup> 부평작가열전

밤의 터미널  
부평아트센터  
3월 17일까지  
032-500-2066



구상과 추상 사이

해든뮤지움  
3월 17일까지  
032-937-6911~2



서슬기 작가 초대전

그날의 꿈  
남동소래아트홀  
3월 6일~30일  
032-439-5001  
070-8820-4038

시골 위의 도시 여행

인천도시역사관  
3층 어린이전시실  
오픈런  
032-850-6000

인천 영국영사관과

하나 글래버 베넛전  
인천관동갤러리  
3월 30일까지  
032-766-8660

흙과 불의 조화, 토기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시실  
3월 31일까지 032-440-6797

사유의 시선

덴아트갤러리 4월 11일까지  
0507-1384-0287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  
윤정미 사진전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4월 28일까지  
032-773-3800



새로 나온 책

<아프면 소문내라>



저자 박덕영  
펴낸 곳 경진출판

‘전직 기자’이자 ‘현직 병원 경영 전문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프면 소문내라>는 의사 진료를 받기 전 수많은 고민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 조언서’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이나 병이 발병했을 때의 슬기로운 대응법을 실제 에피소드를 곁들여 상세히 알려준다. 책에 실린 38편의 글에는 진료실 안에서의 일은 의사 판단에 맡기되, 진료실 밖에서는 의료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저자의 공통된 주장이 담겨 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행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조언에도 귀 기울이면 유익할 것이다.



시민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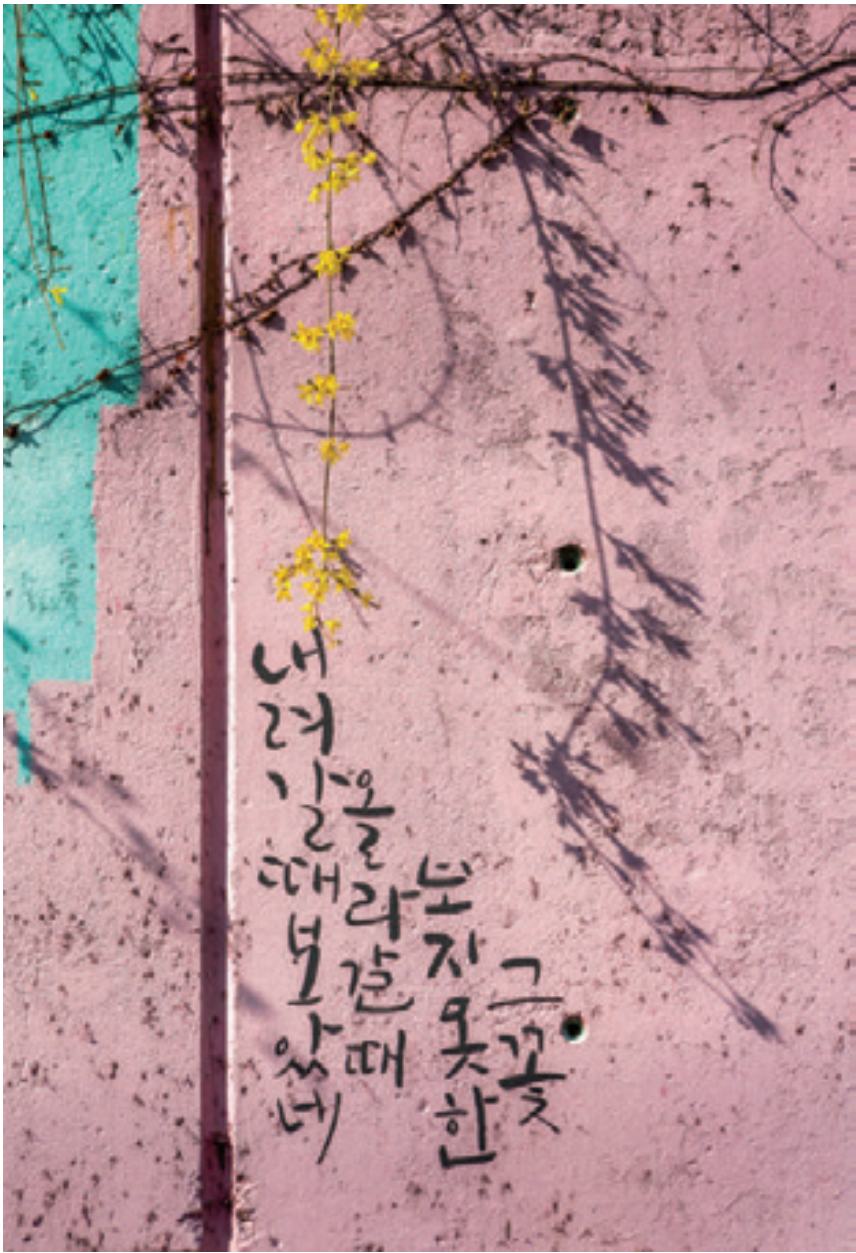
#수줍은개나리 #학교담장벽화 #피어나는희망

첫 번째 시선

부쩍 풀린 날씨에 봄맞이 등산을 즐기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초등학교 담장에 그려진 벽화 위로 수줍게 핀 개나리를 만났습니다. 이 봄,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화사한 계절과 함께 곱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수연(동구 송향로)

1



설렘 가득,  
새 학기를 준비하는 풍경

오늘, 시민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새 희망을 머금은 반짝이는 눈망울로 바라본 시민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시선의 끝자락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빛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시민의 눈에 비친 삶 속 이야기, 새로운 출발선을 앞에 둔 설렘 가득한 ‘새 학기를 준비하는 풍경’을 담았습니다.

視線

#새학기준비 #작은희망 #새로운각오

두 번째 시선

출근길, 우연히 학교 앞을 지나가다 교문을 고치고 있는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벌써 3월이구나...’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이제 새 학기는 없지만, 새 각오로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김지혜(미추홀구 소성로)



#오후퇴근길 #입학환영현수막 #손주들파이팅

세 번째 시선

공공 근로를 마치고 운동 삼아 걸어가는 퇴근길. 동네에 있는 한 중학교 교문에 걸린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다복한 가정, 손주만 아홉 명. 그중 두 명의 손주가 올해 중학생이 됩니다. 부디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해 즐겁게 생활하면 좋겠네요.

이순희(계양구 봉오대로)



2  
3  
4 5

#어엿한중딩 #예쁜교복 #언제나응원해

네 번째 시선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에 이어 둘째도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됐네요. 교복 입은 모습이 아직은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성숙해져 갈 모습을 생각하면 대견합니다. “아들 셋 중 엄마 아빠를 가장 잘 챙기는 둘째 여준아! 중학생이 된 걸 축하한다. 사랑해!”

최지혜(서구 봉오대로)



#어린이집수료 #어엿한세살 #새로운출발

다섯 번째 시선

우리 집 귀여운 막둥이. 태어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어린이집 3세 반을 수료하게 됐답니다. 바쁜 엄마를 도와 돌봐줄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특유의 미소 한 방이면 힘들었던 마음이 사르르. “울아~ 앞으로 펼쳐질 너의 모든 새로운 출발을 누나가 응원할게!”

최하음(서구 가정로)

‘나무와 숲 또는 산’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 참여 방법
1. 주제에 맞는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2.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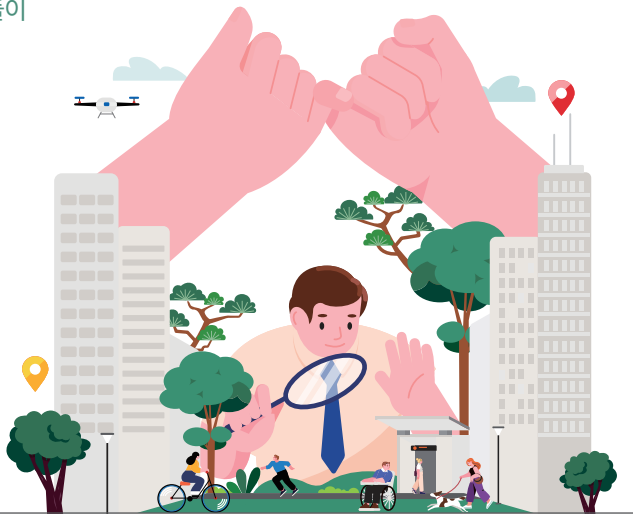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과 사연이 소개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풀리지 않을 새끼손가락, 시민과의 약속이니깐!

지켜진 약속, 확실한 내일, 행복한 미래.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던 날, 새끼손가락 걸고 시민과 약속했던 정책들이 막힘없이 착착 실현되고 있다. 속도마저 압도적이다. 시간 지나도 결코 풀리지 않을 새끼손가락. 시민과 인천의 약속은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 인천시 공약 한 줄 평

- ① 400개 사업 중 293개 사업 정상 추진, 완료된 사업 95개로 속도마저 압도적
- ② 1억+아이드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행정 체제 개편 등 눈부신 성과
- ③ 이제는 실천과 결실 이룰 때, 인천시 시민 체감도 향상에 집중

### 01 시민과 인천의 약속

- 10대 정책
- 120대 공약
- 400개 실천 과제 사업

### 02 공약 달성 목표와 성과



66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목표를 넘어 조기 달성되고 있는 것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시민 체감형 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입니다! 300만 시민과의 약속, 인천시가 반드시 지킵니다!

### 03 실현 중인 약속

293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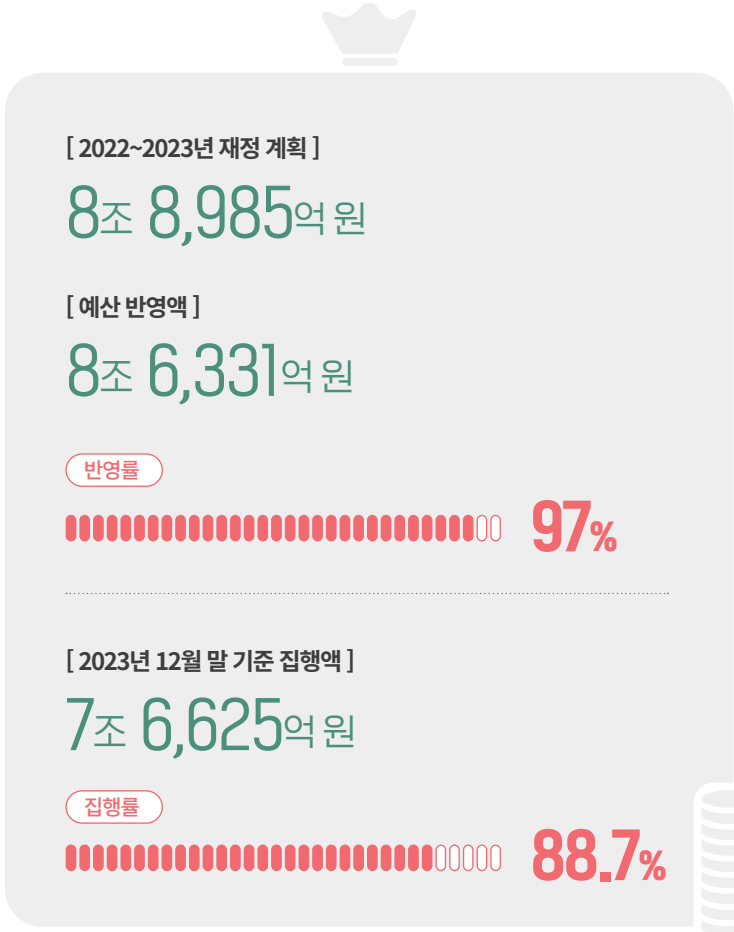
정상 추진 중!

66 인천형 출생 정책 '1억+아이 드림'의 큰 그림이 그려졌고, **서울 9호선 인천국제공항 직결,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GTX-D노선 Y자 연장, GTX-E노선 신설 사업 확정, GTX-B노선 2024년 착공** 등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지난해 12월 공개된 데 이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청사진**이 올 상반기 마무리되면 **원도심 혁신의 공약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 경제 회복 지원 사업, 치매 돌봄 서비스 사업** 등과 같은 시민 체감형 공약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04 재정 계획과 예산 반영



66 이제는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귀를 열어 시민과 소통**해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때입니다!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안들과 함께 장기 플랜 역시 **시민과 소통**하며 **위대한 인천 시대**를 열어 갑니다!



IMAGE NEWS

66 유럽 4개국, 발로 뛰었습니다! 99

땀과 노력의 결실은, 120억 달러 투자 유치 의사

120억 달러  
투자 유치 가시화!



#덴마크 국영 기업 오스테드 60억 달러  
#영국 글로벌 투자사 OWI 50억 달러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 파나핀토 10억 달러

01

유럽 지역  
세일즈 본격화!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강행군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프랑스 상대로 경쟁력 홍보  
#유럽 및 세계 각국 대상 투자 유치 활동 활발

02

글로벌 10대 도시  
전략 현실화!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등 최고 인프라  
#인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03

가까워지는  
비즈니스 허브화!



#193개국,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1,000만 도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성장을 통해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 인천 완성

04

##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 1 ————— 인천시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광역 1위)**에 선정됐다.
- 2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사업에 추가역(005-1, 스타필드 청라 부근)을 신설**하는 도시 철도 기본 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3 ————— 인천시가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 4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민방위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3월부터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 코스 이수**로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 5 —————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인천시는 일상이 편안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틈새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6 —————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 문화재 보존 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 된다. 지정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규제를 완화** 하는 조례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공포·시행됐다.
- 7 ————— 인천시가 시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상진료 대책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의료 기관 휴진 등에 대비한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 중이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INCHEON NEWS

시민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



인천시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광역 1위)에 선정됐다.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이용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 문화 개선 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용자(사회적 약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한 ‘인<sup>ic</sup>품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 사업은 자립 준비 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과 같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 후원, 민간 보건·복지 단체 연계 등 체계적인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자립 준비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하고 있다. 또한, ‘인품가족단’을 구성·운영해 1:1 멘토링으로 자립 준비 청년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의 시 시정혁신담당관 032-440-1652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설비 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 기준에 대한 사전 실태 조사를 벌인다. 건실한 건설 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함이다. 또한,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우선 순위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시 인천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92

청라 연장선, 7개 역에서 8개 역으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사업에 추가 역(005-1, 스타필드 청라 부근)을 신설하는 도시 철도 기본 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청라 연장선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67km, 7개의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이다. 2022년 2월에 착공한 이 사업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기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005정거장(국제업무지구)과 006정거장(청라국제도시역) 사이에 추가 역(터널정거장 178m)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7개 역에서 1개가 추가된 총 8개 역이 건설된다.

문의 시 공사시설부 032-451-2801

인천 시민은 어디서나 인천 시민

인천시가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시 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다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액 시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른 시도에 있는 중고등학교나 등록 대안 교육 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동·하복, 생활복 등 실제 구입한 교복 구입 실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역 시도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 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통장 사본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교복 구입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 말 확정·지급될 예정이다.

문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93

안전 체험하고 민방위 이수하고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민방위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 지정으로 올해부터 자율 참여형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체험관 연계 자율 참여형 교육은 민방위 2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응급 처치와 생활 안전·화재 안전, 자연 재난·교통 안전, 항공 안전·해양 안전 과목을 민방위 연차별 기본 교육 시간 이상 이수하면 인정된다. 교육 대상자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각 체험 코스 사전 예약 시 ‘민방위 교육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한 일자에 체험관을 방문해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문의 시 비상대책과 032-440-5769

틈새 없는 교통, 언제나 시민 곁에<sup>愛</sup>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인천시는 일상이 편안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틈새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심야 안심 ‘별밤버스’ 운영을 통해 심야 시간 단절 없는 교통 수단 연계로 안심 귀가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천형 친절 택시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며, 전국 최초 태그리스 시스템 전면 구축으로 시민 불편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아기 쉼터 개선을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접근성 강화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인천시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틈새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일상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교통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시 교통정책팀 032-440-3852

인천을 즐기는 재미가 두 배로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시티 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인천 시티 투어는 원하는 정차역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순환형 노선(2개)과 전문 가이드가 함께 탑승해 주요 관광지를 당일로 여행할 수 있는 테마형 노선(8개에서 10개로 확대)이 운영되고 있다. 순환형 노선으로 송도와 영종도의 주요 관광지를 잇는 ‘바다 노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마다 1일 7회 운영되며, 신규 관광지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등이 추가된다. 또한, 송도와 개항장 일대의 주요 관광지를 잇는 ‘인천 레트로 노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시간마다 1일 6회 운영되는데, 신규 관광지인 상상플랫폼 등을 포함해 노선이 개편된다. 기존 8개인 테마형 노선은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 월미도 투어 코스를 신규 운영해 10개로 확대되고,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노을 야경 투어에 을왕리 해변이 추가되어 2개 코스가 운영된다.

문의 시 관광마이스기반팀 032-440-4102

1인 가구의 모든 것을 한 곳에

인천시가 분야별 1인 가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 1인 가구 포털(www.incheon.go.kr/1in)’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3년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천의 1인 가구 수는 37만 명을 넘어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인 가구 정책, 지원 사업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인 가구 포털을 새롭게 구축했다. 포털에는 정서·주거·안전·건강·경제 등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지원 사업들이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해 가족센터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 1인 가구 포털’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 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문의 시 1인가구지원팀 032-440-2807



인천유나이티드도 ‘APEC 유치 염원’



인천유나이티드의 2024 시즌 새 유니폼 ‘스펙트럼’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캐치프레이즈 ‘2025 APEC Incheon 이제는 인천입니다’가 함께 새겨졌다. 인천시는 그동안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유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100만 서명 운동 전개(110만 달성), 재외공관장 간담회 실시, 세계적 석학 비노드 아가왈 석좌교수의 APEC 특강 등 활발한 유치 활동을 통해 대시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프로축구 유니폼 소매에 적힌 캐치프레이즈 역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향한 인천시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낸 것이다. 문의 시 글로벌도시기획과 032-440-1575

지갑 얇은 청년들 월세 지원

인천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여의도 13배, 문화제 규제 완화

지정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역사 문화 환경 관리 방식 혁신 정책 기조에 맞춰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녹지 지역과 도시 외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문의 시 문화유산과 032-440-4483

의료 공백, 시민 불편 최소화 지원

인천시가 의료계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인천시는 이미 2월 8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의료 기관 휴진 등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천의료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적십자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4개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했다. 보건소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기관 휴진 및 응급 의료 기관 운영 상황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운영 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활용해 24시간 근무 및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관내 25개 응급 의료 기관의 진료 현황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경증 환자들은 대형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1859

우리가 밝고 선  
이 땅의 이름들



글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천 남동구는 남동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인천에 중·동·서구처럼 방위方位에 따른 구區 이름이 많다 보니 남동구도 ‘南東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남동구의 남동은 ‘南洞’이다. 이 지역은 구한말에 남촌면南村面과 조동면鳥洞面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日帝가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이 두 이름에서 각각 ‘南’과 ‘洞’을 따서 이름을 만들었다. 이처럼 남동은 남촌南村과 조동鳥洞에서 생긴 이름인데, 이들은 무슨 뜻일까.

먼저 남촌은 ‘관아官衙의 앞(남쪽)마을’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인천의 행정 중심 기관이었던 인천부仁川府 관아가 지금의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대에 있었으니, 관아를 기준으로 이곳은 대략 그 남쪽에 있는 마을이었다.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남쪽을 앞으로, 북쪽을 뒤로 여겼다. 우리 민족 주류主流의 선조들이 먼 옛날 시베리아 일대에서 한반도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는데, 북쪽 지방에서 남쪽으로 계속 앞을 보고 내려왔기에 남쪽이 앞, 북쪽은 뒤가 된 것이다. 조선 중종 때 최세진이 지은 한자학서 『훈몽자회訓蒙字會』에 ‘南:앞 남, 北:뒤 북(북)’이라 설명해놓은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지역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마을은 앞마을이라 불렀고, 이를 한자로 바꾸면 남촌이 된다.

조동은 우리나라 땅 이름에 흔한 ‘새말’을 한자로 바꾼 것인데, 이는 ‘새’라는 우리말 단어 때문에 여러

南洞

세 번째 땅 이름  
[남동·남동구]

가지로 해석이 된다. ‘두 지역 사이(새)의 마을’, ‘새로 생긴 마을’, ‘새<鳥>가 많은 마을’, ‘풀<새:草>이 많은 마을’ 등이 그것이다.

이곳 조동에 대해서는 이들 4가지 해석 모두 각각 맞다는 주장과 그에 딸린 해설이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옳다고 꼭 집어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곳의 옛날 상황을 짐작해볼 때 ‘풀이 많은 마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구한말까지, 조선시대 내내 이곳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동네가 온통 논과 들판이라 ‘새말’로 불리던 동네였는데, 이를 한자로 바꿀 때 ‘草<새>’를 ‘鳥<새>’로 잘못 생각해 ‘鳥洞’이 됐다는 말이다. 여기서의 ‘새’는 ‘역새’ 등의 단어에서 보듯, 벼 종류의 풀을 통틀어 일컫는 우리말이다. 우리나라 땅 이름에서 이렇게 한자가 잘못 쓰인 사례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본다면 ‘남동南洞’이라는 이름은 ‘관아의 앞마을’과 ‘풀이 많은 마을’이 합쳐 생긴 것이 된다.



고지도에 나오는 남촌면과 조동면



COUNCIL NEWS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



인천시의회가 의장 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신임 의장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신임 의장은 총 21표(무표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 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진정성을 다해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 삶을 윤택하게 하는 법안 마련



인천시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제29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으며, 총 3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립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인천청인학교에 방문해 특수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천청인학교는 2018년에 미추홀구에 개교한 특수 학교로, 유·초·중·고·전공 등 총 5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특수 학교 부족으로 인한 과대·과밀 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특수 교육과 졸업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어업인 생계 보호를 위한 노력



인천시의회에서 어업인들의 생계 보호와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인공 어초 확대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시·웅진군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인공 어초는 해저나 해중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해양 생물을 정착시키거나 끌어모으고, 나아가 생물을 보호·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장 시설을 말한다. 인공 어초 시설 사업은 수산 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해 어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수산 자원의 조성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인천시 인공 어초 시설 사업은 인천시 관할 해역 4곳이 예정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6억 4,4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해역별로 1종의 어초 시설을 포함해 총 4종의 인공 어초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 추진 절차에는 적지 조사, 인공 어초 추천, 어초관리위원회 개최, 공사 설계 및 특허 협의, 사전 영향 조사, 공사 계약, 어초 제작, 어초 투하 및 공사 준공 등이 포함된다.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동행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분 개장을 시작한 영종국제도시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방문해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인천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종에 국한된 상생이 아닌 단순한 리조트 이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스파이어 리조트 측은 지난해 말 기준 리조트 임직원 총 1,625명 가운데 인천 거주 비율이 약 82.6%로, 지역 청년 채용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근 용유동 및 운서동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기부와 지원 행사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과의 상생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외국인 직접 투자의 모범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교육 허브의 위상을 높이도록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을 방문해 캠퍼스 건물 내 건축·소방·전기·승강기 등과 함께 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관 시설을 점검했다. 2011년 준공된 생활관은 이미 10년 넘게 사용되어 기계 장비 등의 내구 연한이 지난 지 오래다. 생활관 B동의 경우 1,300객실의 냉난방기가 노후화로 인해 누수 등이 발생,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을 둘러본 산업경제위원회는 시설들이 입주 대학에서 상시 이용한다는 점에서 노후 시설을 조속히 교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세계 수준의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재단의 비전에 걸맞게 캠퍼스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원도심 취약 계층 지원 과제 연구회’는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의무 강화를 주제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원도심 취약 계층 지원 과제 연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력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역 현안인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에서 인천시의 노선안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서구 원당동에 소재한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단 홍보관을 방문해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천시 노선안 반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 사업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 보고 받은 후 인천시 노선안이 최종 관철될 수 있도록 주민, 인천시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의정소식> 구독 안내



인천시의회의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의회 소식지 <인천의정소식>에서 확인하세요.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6



<인천의정소식> 바로 가기



여기,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달리는 인천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천의 찬란한 내일을 여러분만의 빛깔로 색칠해주세요. 새하얀 공간이 시민의 색으로 물들어갈수록, 인천의 행복한 미래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인천의 눈부신 오늘과 찬란한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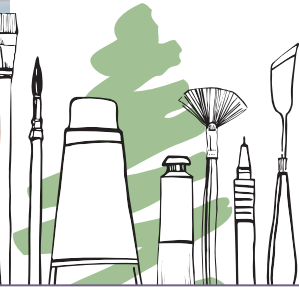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강화 석모도 칠면초 군락지 해안 산책길 조성

붉게 물든 칠면초가 연출하는 아름다운 물결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다. 강화 석모도 칠면초 군락지에 해안 산책길이 열렸다. 인천시는 2월 10일부터 새롭게 조성된 해안 산책길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칠면초는 칠면초처럼 색이 변한다고 해 이름 붙여진 식물이다. 해안 산책길에는 100m 길이의 전망 데크와 산책로, 잔디 광장, 주차장, 녹지 등이 조성됐으며, 산책길 끝자락에서는 칠면초 형상의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해안 산책길 개방은 해안선 친수 공간 워터프런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천의 아름다운 바다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 더욱 뜻깊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안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화 석모도 칠면초 군락지(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산 174-1)



2024년 2월호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이지안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홍정아 남동구 운연천로



조요한 부평구 마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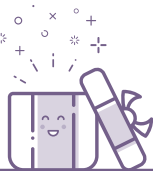


백규린 중구 은하수로



심영민 부평구 부개로

강화 석모도 칠면초 군락지는 석모도의 넓은 갯벌 위에 자줏빛 붉은 칠면초가 무리 지어 피는 곳이다. 칠면초는 봄에는 초록빛을 띠다가 가을이 되면 붉은빛이 되고, 차츰 자줏빛으로 변한다.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칠면초 군락이 곱게 물든 해안 산책길을 걸으며 광활한 강화 갯벌을 즐길 수 있다.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 작가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홍보기획관실 <굿모닝인천> 담당자 앞  
② 메일 : gmi2024@naver.com  
기간 3월 18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 시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정년퇴직 근로자 채용하고 인센티브 받아요

내용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지원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 원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 ※지원 대상 기업 3개월마다 근로자 근무 상황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대상	만 60~64세(1959~1963년생)
신청	인천 중소기업 지원 포털(비즈오케이)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032-440-4272



02 인천 청년이라면 도전하세요

내용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자립 준비 청년 대상 1대1 심층 상담, 진로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진행, 구직 의욕 향상 지원
대상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39세 이하 청년 270명
구성	도전 프로그램(5주 이상), 도전+ 프로그램(중기 15주 이상, 장기 25주 이상) ※ 도전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 수당 50만 원, 도전+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 수당·이수 인센티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신청	인천청년포털 및 인천 청년 공간 유류기지 홈페이지
문의	032-440-2888



03 사업체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내용	2024 사업체 조사 실시
기간	3월 12일까지
이유	업체 분포 및 고용 구조 파악 후 이를 기반으로 통계 자료를 만들어 정책 수립, 지역 개발 계획 수립, 학술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
항목	사업장 대표자, 창설 연월, 조직 형태, 사업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문의	080-001-2024

04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내용	‘2024년도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2단계 사업 접수
규모	1,575억 원(당초 계획보다 225억 원 확대)
지원	신한·농협·우리·하나·국민·카카오뱅크 보증 재원 105억 원 출연, 인천시 3년간 대출 이자 비용 ※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 업종 (도박·유혹·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또는 보증 제한 사유 (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상담 예약	- 온라인 : ‘보증드림’ 앱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고 - 방문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032-440-1742



05 난임 부부들을 응원합니다

내용	난임 부부 대상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치료 지원 실시
대상	난임 부부 250명(선착순)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로, 한방 난임 치료 기간 동안 양방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한방 난임 사업과 중복 지원도 불가
지원	한약 치료 3개월(120만 원/1인), 사후 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
문의	032-440-3223

06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내용	인천노동권익센터 찾아가는 노동 상담 진행
시기	매월 1회
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인천북부지청
지원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문의	1533-2942

07 옛날 옛적 인천은?

내용	인천 설화 모음집 <옛날 옛적에 인천은> (제7호 개정판), 개항기 사법기관 인천감리서 공문서 역주 <역주 <sup>譯註</sup> 인천항안 II >(제99호) 발간
배포	- 옛날 옛적에 인천은 : 관내 초등학교 및 관내 도서관 - 역주 <sup>譯註</sup> 인천항안 II : 관내의 도서관 및 지역 연구기관
열람	인천시 홈페이지(인천 소개→인천 역사→역사 자료실 →인천역사문화총서) 및 인천시 전자책 홈페이지 (문화·관광→인천역사문화총서)
문의	032-440-8383



08 진정한 주민 자치를 실현하세요

내용	2025년도 예산 편성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
기간	4월 12일까지
대상	인천 시민, 시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회원 등 누구나
참여	- 온라인 : 인천시 홈페이지 접속→시민 참여→ 주민 참여 예산→사업 제안 신청 - 우편·방문 : 21554,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 팩스 : 032-440-8632 ※ 제안 사업 접수 후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 원권 커피 쿠폰 증정
문의	032-440-2242, 2244



09 난방비 아끼는 착한 보일러 놓아드려요

내용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비용
지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대당 60만 원, 총 1,750대 ※ 친환경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 표지 인증(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을 받은 제품
대상	저소득층, 취약 계층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032-440-3503

10 배움으로 희망찬 봄을 시작하세요

내용	서부여성회관 2024년 제2기 사회 교육 수강생 모집
기간	3월 22일~29일(추가 모집 4월 8일 오후 6시까지)
교육	4월 1일~6월 15일 11주 과정
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시 거주자 ※ 전 과목 정원 20% 범위 내 남성 수강 가능(일부 강좌 제외)
수강료	3만 6,000원, 4만 5,000원, 6만 원(교재비·재료비 별도)
신청	서부여성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과목	8개 분야(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창업 교육, IT 전문 교육, 어학 전문 교육, 문화 아카데미, 웰빙 건강 교육, 주말 교육, 특강) 80개 강좌
문의	032-458-7360



11 우리 쌀, 우리 밀로 가공식품 만들어요

내용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우리 쌀, 우리 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생 모집
교육	이론 과정과 밥도그, 누룽지 피자, 흑미 샐러드, 찹쌀 타르트 등 우리 쌀과 밀을 이용한 가공 조리 식품 실습 과정
기간	3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3회 과정
대상	일반 시민(선착순)
신청	인천시 온라인 통합 예약 홈페이지
문의	032-440-6935

2월호 애인<sup>愛人</sup> 능력 평가 당첨자

김용란(부평구 안남로)	이영인(서구 청라커널로)
김의중(부평구 영성동로)	이용선(남동구 장승남로)
김현(서구 숭빛로)	조미희(서구 크리스탈로)
김형숙(연수구 연우금로)	최은영(미추홀구 매소홀로)
방영숙(계양구 당미2길)	최종화(부평구 경인로)

※ 당첨되신 분들께는 3월 중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3월 '애인<sup>愛人</sup> 능력 평가'는 쉽니다.



행복도시,  
담론이 아닌 실체로...

<굿모닝인천>의 표지에 날개를 다는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청룡의 해 첫 달에 선보인 첫 번째 날개는 해맑게 웃고 있는 3남매를 품고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나서야 비로소 한 쌍의 부부가 왜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개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지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지 겹장의 캔버스에 그려진 지도와 확연히 다릅니다. 지역과 지역을 가르는 선의 흐름이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바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설계된 행복 지도입니다.

이제 <굿모닝인천> 3월호에 세 번째 날개를 달았습니다. 독자들이 커튼에 비친 희미한 숫자에 궁금증을 갖기를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소됐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겠지요.

사실 접지면(날개)을 활용한 표지를 <굿모닝인천>의 고정적인 편집·제작 방침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날개를 단 표지가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 호에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 ‘특정 메시지’는 ‘행복’입니다.

1월호 표지에 등장하는 다둥이가족이 저출생 시대에 더욱 소중해지는 가정의 행복을 상징한다면, 행정 체제 개편을 콘셉트로 2월호 표지에 묘사된 지도는, 시민 사회의 행복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번 3월호에서는 가정과 시민 사회를 아울러 행복의 범주를 더 넓히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에 ‘행복’이라는 관념적 개념을 접목해 보았습니다. ‘1, 300만, 100조, 2’ 등 우리 시에 유의미한 숫자를 씨줄, 날줄 삼아 추상적 담론일 수 있는 ‘행복도시’의 실체를 조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직조물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표지에서 꼬맹이 막내가 두른 머플러, 두 번째 표지에 등장하는 어린 화가의 캔버스, 그리고 3월호 세 번째 표지에서 광휘와 함께 숫자를 토해내는 마술 모자까지 모두 씨줄과 날줄의 엮음으로 탄생한 것들입니다.

행복도시 또한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 기관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 행복도시 구현은 요원합니다. 올바른 시정 방향 설정과 추진력,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부심이 씨줄 날줄처럼 엮여야 ‘행복도시 인천’이 실현될 것입니다. 마치 1차원적 존재에 불과한 실이 3차원의 마술 모자로 변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3월호의 날개를 펼칠 때 ‘짠’하고 등장하는 마술 모자는 씨줄, 날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은유합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행복도시는 행복을 공유하고자 하는 도시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될 것입니다. 씨줄 날줄로 행복을 엮어가는 도시. ‘행복도시 인천’이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 일상으로 다가올 날을 기다려 봅니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仁 · 生 · 네 · 컷

## ‘의미심장한 역사 지대’를 걷다

“인천에서의 행복한 삶을 네 컷 사진에 담는다.”

<굿모닝인천>이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을 통해 시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진으로 추억을 선물합니다.

참여 **이호은**(남동구 구월로)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솔직히 고백하자면, 잘 몰랐습니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봤던 그 위대한 김구 선생께서 내가 사는 인천과 이토록 인연이 깊다는 것을 말입니다. 3·1절을 며칠 앞둔 2월의 끝자락, 중구 신포동에 조성된 ‘김구 역사 거리’로 향했습니다. 역사가 깃든 길을 따라 8개 이야기로 구성된 거리는 인천을 무대로 한 선생의 궤적을 엿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좁다랗고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 옛 인천감리서터 맨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김구 선생과 그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동상이 인천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 지대다’. <백범일지>에 새겨진 묵직한 울림을 뒤로하고, 오늘날 김구 선생은 우리 시가 만들어가는 ‘평화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긴 추억의 한 페이지를 <굿모닝인천> 독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 4월호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에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가족, 친구 등 사진을 함께 찍을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짧은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면 기억에 남을 멋진 사진을 촬영해드립니다. **참여 신청** gmi2024@naver.com